

# 잡지 『뿌리깊은 나무』와 1970년대 지식 · 문학장의 교호\*

최 은 아\*\*

## 요약

본고는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 『세계의 문학』 등지에서 활동하던 1970년대 한국 문단의 비평가들이 월간 종합지 『뿌리깊은 나무』 지면을 통해 공존하게 되었던 문학적 장면의 의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뿌리깊은 나무』는 여러 학문 분야의 필자를 고르게 참여시켜 당대 지식계의 전체상을 지면에 담아내고자 하였고, 견해가 서로 어긋날 때 어느 한쪽에 힘을 싣기보다 양쪽을 함께 실어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편집 태도를 고수하며 이를 ‘저울대’라는 표현으로 규정한 바 있다. 편집진은 기사 일반에 대해서는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문학 작품과 비평, 서평에 대해서는 손질을 삼갔는데, 본고에서는 통제와 방임이 지면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이러한 운용 방식이 서로 다른 문학관의 공존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세계의 문학』과 『문학과지성』의 이념을 각각 대표하는 김우창과 김현이 차례로 문학 부문의 편집위원을 맡았다는 사실은, 이 잡지의 지면이 어느 한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서평을 통해 각 진영의 비평가들이 상대방의 저작을 평가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일어났다. 여성 문제를 다룬 글들과 박완서의 산문, 조세희의 실험적 한뼘소설 투고 등은 진영 구도로 환원되지 않는 쟁점이 이 지면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고는 이 잡지를 하나의 문예적 공론장으로 파악하였다. 문학을 주변화한 종합교양지라는 이 잡지의 위치가 실은 여러 문학 세력을 한 지면에 불러 모을 수 있었던 토대였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로써 1970년대의 문학 지형을 계간지 간의 대립으로 기록하던 통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7090239).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념을 보완하고 동시대의 문인들이 경쟁과 더불어 공존을 경험했던 또 다른 자리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1970년대, 잡지, 『뿌리깊은 나무』, 지식장, 문학장, 문단

## 목차

1. 서론: 왜 다시 『뿌리깊은 나무』인가
2. ‘저울대’의 편집 원리와 대안적 지식장의 구축
3. 계간지 지형의 재현과 문학 지면의 재편
4. 서평란의 교차와 진영 바깥의 글쓰기
5. 결론

## 1. 서론: 왜 다시 『뿌리깊은 나무』인가

『뿌리깊은 나무』는 1976년 3월 한국브리태니커회사의 사보 『배움나무』의 판권을 승계하여 창간된 뒤, 1980년 8월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으로 통권 53호를 끝으로 폐간되기까지 1970년대 후반의 지식·문학장에 뚜렷한 궤적을 남긴 월간 종합교양지이다.<sup>1)</sup> 발행인 한창기를 중심으로 초대 편집장 윤구병과 2대 편집장 김형윤 등이 실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들 편집진은 문화를 잡지의 중핵에 두고 대중과 학문과 언론의 언어를 우리말로 통일한다는 원칙을 표방하였으며, 그 원칙 아래 인문·사회·의학 등 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무명의 대중에 이르는 600여 명의 필진을 지면에 불러들였다. 200쪽 안팎의 두께에 가로쓰기와 4×6배판이라는 당대로서는

1) 『뿌리깊은 나무』는 종합지 등록 인가가 어려웠던 사정에 따라 한국브리태니커회사의 사보 『배움나무』의 판권을 이어 창간되었으며, 통권 26호부터 발행처가 뿌리깊은나무 출판사로 바뀌었으나 사장은 여전히 한창기였다. 1980년 7월 30일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으로 정기간행물 172종이 폐간될 때, 이 잡지는 ‘계급의식의 격화 조장과 사회 불안 조성’을 이유로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 『씨알의 소리』와 함께 폐간되었다. 강운구 외, 『특집! 한창기』, 창비, 2008, 14면 참조.

파격적인 체제를 채택하고, 편집팀과 미술팀을 분리 운영하며 전속 사진가와 디자이너를 두었던 이 잡지가 한국 잡지사의 한 국면을 점하고 있음은 이미 여러 차례 다뤄진 바 있다.

그러나 이 잡지가 문학 연구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1970년대 후반의 문학장에서 서로를 타자로 의식하며 각자의 진지를 구축해 온 비평 세력들이 나란히 배치되는 장면이 이 잡지 지면을 통해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문학과지성』의 기수 김현이 이 잡지의 예술비평란에 3년 가까이 월평을 연재하는 동안 『창작과비평』이 표방해 온 민족적 민족문학론은 백낙청의 손으로 같은 잡지의 머릿기사에 게재되었으며, 서평란에서는 이상섭이 백낙청의 『민족 문학과 세계 문학』을 다루고 김치수가 김현의 『한국문학의 위상』을 논하는가 하면, 창비의 구중서가 황석영과 김정한을, 1970년대 중후반 당시 창비 쪽에서 활동하던 김종철이 『세계의 문학』의 김우창을 각각 상찬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즉 서로 다른 진영에 적을 둔 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대의 문학적 성과를 두고 각자의 문학론을 개진하는 양상이 이 잡지의 지면에 착종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회집이 가능했던 까닭은 역설적이게도 『뿌리깊은 나무』가 문학 전문지가 아니었다는 데 있다. 동인의 이념적 결속을 지면의 성립 조건으로 삼아 온 계간 문예지와 달리, 종합교양지 『뿌리깊은 나무』는 문학을 여러 분과 가운데 하나로 배치하는 매체였다. 바로 그 때문에 이 잡지는 특정 문학 진영에 대한 소속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대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우창, 김현, 백낙청과 같은 문인들에게 이 잡지의 지면은 문학적 정체성을 표방하는 자리라기보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동시에 문학장을 넘어 당대 지식장에 자신을 기입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이었다. 본고가 규명하고자 하는 바는 종합교양지라는 이 매체의 특질이 서로를 타자로 의식하던 문단 세력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문학사적 장면을 어떤 식으로 성립시켰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간 『뿌리깊은 나무』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이 잡지의 매체적 위상과

민중주의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소준철은 매체론적 시각에서 잡지의 탄생과 편제와 필진을 최초로 일별하며 이를 “전통적 생활세계의 복원”으로 아울렀고, 이한빛은 뿌리깊은 나무 출판사의 활동을 아울러 “한국문화”를 재편하는 문화기획으로 파악하였다.<sup>2)</sup>

또 ‘토박이’·‘민중’·‘댄디’·‘교양’이란 표제 아래 이 잡지의 미디어적 위상을 총괄하면서 민중의 생활세계 재현에 진력한 편집 주체들이 당대 민중의 현실적 감수성과는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는 ‘정신적 귀족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전상기의 연구, 『뿌리깊은 나무』 특유의 르포적 글쓰기와 우회적 전략이 1970년대적 민중을 재현하고 주조하는 과정에 주목한 최은아의 연구와 ‘숨어사는 외톨박이’ 연작을 통해 토박이 민중 군상의 재현 의의를 분석한 서은주의 연구, 역시 동일한 코너와 『민중 자서전』 기획을 가리켜 ‘감성의 재분할’을 실천한 심미적·정치적 기획으로 독해한 송은영의 연구가 대표적이다.<sup>3)</sup> 이들 논의가 잡지의 문화적 기획과 민중주의, 그리고 그 임계를 밝혀 온 것이라면, 잡지 내부에서 문단 세력이 교호(交互)하는 양상, 그리고 그 교호를 매개한 서평란과 비평 지면의 재편은 본격적으로 다뤄진 바 없으나, 『뿌리깊은 나무』를 일면 문학장의 견지에서 다룬 것으로는 한보성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sup>4)</sup>

그는 김현이 통권 16호부터 51호까지 예술비평란의 고정 필자로, 1978

2) 소준철, 「1970년대 전통적 생활세계와 생애사적 기록: 『뿌리깊은 나무』를 중심으로」, 한국학 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5; 이한빛, 「산업화 시대의 문화기획 - 『뿌리깊은 나무』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3) 전상기, 「토박이·민중·댄디·교양 - 『뿌리깊은 나무』의 미디어적 위상」, 『반교어문연구』 45, 반교어문학회, 2017; 최은아, 「잡지 『뿌리깊은 나무』의 민중주의와 글쓰기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서은주, 「소외의 재현 - 『뿌리깊은 나무』의 ‘숨어사는 외톨박이’ 시리즈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26, 구보학회, 2020; 송은영, 「1970-80년대 민중의 외연과 내연 - 『뿌리깊은 나무』의 외톨박이 시리즈와 『민중 자서전』 시리즈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90, 동악어문학회, 2023.

4) 한보성, 「지식의 ‘민주화’와 ‘문학사회학’의 등장 - 김현의 문학사회학과 『뿌리깊은 나무』의 연관성」, 『반교어문연구』 45, 반교어문학회, 2017.

년 4월부터는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던 이력을 복기한다. 한글 사용을 매개로 한 지식의 민주화, 대중문화를 향한 기대와 우려의 양가성, 그리고 문학 상품화를 역사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한 김현이 매체론적 접근으로 나아가는 도정이 드러난 것이 『뿌리깊은 나무』 지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시야는 김현이라는 단일 필자와 잡지 이념의 일치를 확인하는 데에 머문다. 초대 편집위원인 김우창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으며 백낙청 또한 주변적으로만 등장하였고 서로 다른 진영의 필자들이 서로의 저서를 평가하며 맞물렸던 서평란에 대한 논의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김현의 텍스트를 잡지 이념과의 공명으로만 해석하기보다 특정 진영의 문학론이 종합교양지 지면에서 발화된 하나의 사례로 재독하고, 이를 김우창과 백낙청을 위시한 여러 필자의 지면 및 서평란과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논의의 층위를 옮기고자 한다. 요는 한 비평가와 한 매체의 일치 여부를 넘어 서로를 이념적 타자로 의식하던 복수의 문학 세력이 어떻게 한 지면 위에서 공존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만 미리 밝혀 둘 것은 본고가 이를 대립의 다른 이름으로만 읽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창비와 문지는 분명 상이한 문학적 이념을 표방하며 길항하였으되 그 길항은 상대를 향한 견제만이 아니라 경의와 상호 검토를 아울렀으며 때로는 동일한 대상을 두고 유사한 진단에 이르기도 하였다. 잡지의 지면은 바로 그 대립과 공존의 이중성이 노출되는 자리로 기능했던 것이다.<sup>5)</sup>

이와 같은 두 계간지의 양립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문학과지성』이 『산문시대』, 『사계』, 『68문학』 등의 계보 위에서 『창작과비평』에 대한 대타의식의 산물로 창간되었으며 그 결과 1970년대 비평사의 구도가 두 계간지의 대립이라는 도식으로 고착되

5) 아울러 본고에서 언급한 '진영'은 실체를 전제한 분석 범주라기보다 당대 문인들의 자기 인식과 이후의 문학사가 굳혀 온 구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고의 관심은 해당 구도의 재확인 을 넘어 그것이 이 지면 위에서 팽팽해지고 느슨해져 가며 교류해 온 방식에 있다.

있음을 밝힌 하상일의 연구가 문지 진영의 형성 과정을 규명하였다면, 김성환은 동인 체제의 유지와 기발표작의 재수록이라는 편집 전략을 통해 각 계간지가 자신의 문학적 태도를 강화하고 진영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갔음을 밝혔다. 이 연구들을 통해 보면 이들의 분립은 담론에 그치지 않고 지면의 운용 방식에까지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또한 창비 편집진의 담론이 소수 지식인과 다수 민중의 연합이라는 집단적 주체의 구성과 사상적 일체화의 지향으로 결속되어 있었다는 윤상현의 분석<sup>7)</sup>과 민족문학론의 민중 개념이 국가의 동원 기획에 맞서는 집단적 주체의 기획이었음을 밝힌 송은영의 논의<sup>8)</sup>를 통해 진영 내부의 응집이 어떠한 사유 구조 위에서 가능했는지에 관해 해명된 바 있다.

나아가 안서현은 1966년부터 1980년까지를 ‘계간지 시대’로 설정하고 두 계간지가 기존 동인지보다 개방적인 매체 체계, 곧 ‘개방적 동인 체제’를 표방하였음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민족(민중)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이라는 통념과 달리 두 잡지의 공존이 공동 과제의 분업적 수행을 포함하고 있었음을 밝히며 두 계간지의 관계를 대립만으로 설명해 온 구도를 상대화하였다.<sup>9)</sup>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진영의 개방성과 공존은 어디까지나 계간지 자신의 체제와 담론 내에서 이룩된 것이었다. 재수록 제도가 문지 지면으로의 호명이었고 분업적 공존이 담론 차원에서의 공존이었으

6) 김성환, 「1960-70년대 계간지의 형성과정과 특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7) 윤상현, 「1960-1970년대 초 지식인들의 사유구조와 역사 서사 -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80권 2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 창비 초기 담론의 인식론적·정치적 함의에 관해서는 김현주, 「1960년대 후반 ‘자유’의 인식론적, 정치적 전망 -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8,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참조.

8) 송은영, 「민족문학이라는 쌍생아 - 1970년대 『창작과비평』의 민중론과 민족주의」, 『상허학보』 46, 상허학회, 2016.

9) 안서현, 「계간지 시대 비평 담론 연구 - 1966-1980년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문학과지성』의 비평이 지식과 인식의 방법을 확산하는 글쓰기로 기능하였다는 분석으로는 허선애, 「『문학과지성』의 비평적 글쓰기 연구 - ‘문학·지식’의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참조.

므로 계간지 바깥에 놓인 제3의 지면 위에서 실현되는 국면은 본격적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물론 상이한 진영의 문인들이 한 지면에 나란히 투고하는 사건 자체가 잡지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세대』와 『신동아』를 위시한 동시기의 종합교양지들은 진영을 달리하는 필자들의 글을 지면에 실어왔으며 일간지의 문학란 역시 주요 계간지의 편집위원들을 필진으로 기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필진 다수가 공통된다는 것이 그 지면의 성격이 같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필자는 언제나 자신이 기고하는 지면이 어떤 매체 인가를 의식하며 글을 조율하므로, 모든 발화가 그것이 통일 소통의 영역과 수신자를 전제하고 조형된다는 바흐친의 명제<sup>10)</sup>를 상기하면 같은 평론가의 글이라도 이것이 서로 다른 매체의 지면에 놓이는 순간 해석의 여지를 달리하는 발화가 되는 것이다. 매체를 담론과 문학을 창조하는 역동적 실재로 파악해 온 매체 연구의 방법적 전통 역시 같은 전제를 공유한다.<sup>11)</sup>

또한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이러한 병존을 조직한 운용의 체제이다. 『뿌리깊은 나무』는 필자를 초성으로 감춘 익명 비평을 감행하는 등 체제적 실험을 거듭하며 지면에 102편의 서평을 꾸준히 축적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누구의 글이 실렸는지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글이 어떻게 실렸는지까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례로 『세대』가 문학상 제정과 중편 시리즈의 특화로 문학 중점주의를 내세우며 일종의 문예 후원자를 자처한 매체였던 반면 『뿌리깊은 나무』는 문학을 여러 분과 중의 하나로 주변화한 매체였다.<sup>12)</sup> 『뿌리깊은 나무』의 문학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는 김

10) Bakhtin, Mikhail, 김희숙·박종소 역, 『말의 미학』, 길, 2006, 394~395면 참조.

11)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김성환, 「1960-70년대 계간지의 형성과정과 특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참조.

12) 이봉범, 「잡지미디어, 불온, 대중교양 - 1960년대 복간 『신동아』론」, 『한국근대문학연구』 27, 한국근대문학회, 2013, 397~399, 426면 참조.

현을 위시한 당대 주요 평론가들의 평론이 기고된 것은 물론 『서편제』 등의 작품이 발표되었음에도 해당지가 문학적 의의가 약소하다고 곱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문학이 편집 전략의 중핵이었던 지면과 문학이 편집의 시선 바깥에 놓였던 지면에서의 발화는 그럼으로써 더욱 동일하게 독해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특정 발화가 어떤 지면에서 어떤 이웃 텍스트와 나란히 놓였으며 어떠한 편집 원리 아래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뿌리깊은 나무』 지면의 발화를 발화자 개인의 문학적 소견으로 환원하지 않고 그가 문학장에서 점유한 위치와 함께 해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뿌리깊은 나무』의 편집 주체와 편집위원회의 구성 원리를 검토하여 강한 편집권과 개방적 지면이라는 일견 상반된 두 원리가 공존할 수 있었던 조건을 살필 것이다. 3장에서는 이 잡지가 지면을 통해 당대 계간지의 지형을 재현한 국면으로부터 출발하여 문학비평란 담당자의 교체와 더불어 머릿기사로 배치된 평문들의 의의, 그리고 예술비평란에서 수행된 문학범주의 재편을 차례로 분석한다. 또 4장에서는 서평란에서 나타난 진영간의 교차와 더불어 이 진영 바깥에서 지면에 체류한 문인들의 글쓰기를 살피고 이를 잡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진 쟁점들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문학을 여러 분과 가운데 하나로 배치했던 종합교양지 『뿌리깊은 나무』가 그러한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1970년대 문학장에 남긴 문학사적 의의를 재고하고자 한다.

## 2. ‘저울대’의 편집 원리와 대안적 지식장의 구축

『뿌리깊은 나무』가 배태된 1970년대 중후반은 유신 치하 정치적 외압의 시대인 동시에 비판사회학의 시대이기도 했다. 해당지는 민중사회학의 환원상을 위시하여 김경동, 박현채, 이효재, 한상범 등 당대 학술장에

서 활발히 활동하던 사회과학자들을 편집위원과 필진으로 대거 기용하였다. 초대 편집위원들의 전공은 문학 비평, 소설 창작, 국어학, 철학, 신문 방송학, 사회학, 민속, 미술, 연극, 음악 평론에 이르기까지 편중 없이 배치되었는데, 이는 이들 각각을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정위하여 얹힌 결과였다. 즉 해당지 편집위원회의 이러한 구성부터가 당대 지식장의 축도 구현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잡지의 지향성은 지면의 기획에서 곧바로 구체화되었다. 창간 직후인 1976년 4월호부터 잡지는 ‘민중’을 첫 쟁점으로 내세워 철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민중에 대해 논하는 기획을 배치하였다.<sup>13)</sup> 철학자 김형효가 민중 개념의 추상적 관념화를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고, 김용덕의 민중사 서술과 한배호의 정치학적 논의가 그 뒤를 이었다. 주목할 것은 이 릴레이가 사회과학자들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통권 5호에는 창비 계열 비평가 김병걸이 「현실 속의 민중과 소설 속의 민중」을 통해 문학 작품에 그려진 민중의 형상을 개관하는 글을 실었다.<sup>14)</sup>

이를 통해 민중이라는 의제가 사회과학의 언어와 문학 비평의 언어를 동시에 호출하는 자장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중론은 이후 잡지가 폐간에 이르기까지도 놓지 않았던 의제였는데 1979년 4월호의 머릿기사로 배치된 백낙청의 글 「민중의 이름과 얼굴」은 이 연쇄의 정점에 해당한다.

박정희 사망 직후인 1980년 1월호의 「새 헌법은 시작을 이렇게 하자」 특집 역시 이러한 성격을 두드러지게 나타낸 기획이다. 한완상, 홍성우,

13) 김형효, 「민중은 어디에 있느냐?」, 『뿌리깊은 나무』, 1976.4. 해당 기획의 부제는 목차에 노출되지 않은 채 본문에서 “한국 문화의 쟁점을 살피는 기획, 첫 번째 쟁점은 민중이다”로 제시되었다.

14) 김병걸, 「현실 속의 민중과 소설 속의 민중: 문학 작품에 그려진 민중의 모습」, 『뿌리깊은 나무』, 1976.7.

이명현, 최인훈, 한상범, 장을병의 여섯 지식인에게 저마다 헌법 전문을 써 보도록 청탁한 이 기획<sup>15)</sup>은 법률 용어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가장하여 비상계엄 아래의 검열을 우회하면서도 사회학과 문단과 법조계를 횡단하는 필진을 한 지면에 회집시킨 대안적 학술장의 면모를 드러낸다. 사회학과 법학과 철학자 사이에 소설가 최인훈이 나란히 배치된 것은 이 잡지가 상정한 ‘지식인’의 범주와 중요도에 관한 방증이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이 잡지의 지식장은 사회과학과 국문학 외에도 다양한 분과 학문 영역의 기사들이 동일한 편제 안에서 각기 제 몫의 지면을 할당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다. 또 이러한 장의 구축에는 ‘세계’라는 대타항의 배치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러 호에 걸쳐 외국인 필자가 한 명씩 참여하여 한국의 정치와 문화에 관한 에세이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한국 사회에 이미 체류하고 있거나 또는 국외에서 오래도록 한국의 여러 요소를 관찰해온 필자이므로 내부적 외부자의 시선을 통해 『뿌리깊은 나무』에서 천착했던 토박이 문화의 발굴이 국수주의로 함몰되지 않도록 견인하는 균형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창간사에서 밝혔듯 우리 문화를 세계 문화의 한 줄기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던 매체의 지향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참여는 토박이 문화의 발굴과 더불어 이를 외부의 시선 앞에 세우려는 편집적 의지의 한 표현이었다. 이러한 기사들과 짝을 이루는 것은 전통 예능과 민속에 관한 기획으로, 국문학자 조동일이 「농부의 노래와 선비의 노래」에서 민요와 시조를 대비하고 폐간호에 이르러 「구경거리와 구경꾼」으로 전통 연희의 수용 방식을 논한 것, 김열규가 민속의 현장을 기록한 기고들이 이에 속한다.<sup>16)</sup>

이처럼 어느 한 분과 또는 이념으로 기울어지는 균형을 맞추고자 다른

15) 「특집: 새 헌법은 시작을 이렇게 하자」, 『뿌리깊은 나무』, 1980.1.

16) 조동일, 「농부의 노래와 선비의 노래」, 『뿌리깊은 나무』, 1976.8; 조동일, 「구경거리와 구경꾼」, 『뿌리깊은 나무』, 1980.8; 김열규, 「지리산에서 만난 “반떼기”」, 『뿌리깊은 나무』, 1976.12 등.

것들을 배치하는 식의 편집 형태가 당대 문학장과 무관하게 작동하지 않았음은 여러 국면을 통해 확인된다. 편집위원 가운데 두고 빈도가 매우 높은 축에 속했던 신문방송학자 유재천은 창간 초기부터 신문비평을 연재하는 한편 1979년 한국사회학대회에서 문예사회학 분과 발표의 일환으로 신문소설을 사회 변동의 지표로 분석하여 사회학과 문학을 아우르는 간학문적 연구를 시도한 바 있는데, 이는 김현의 예술비평란에서 곧바로 논평되었다.<sup>17)</sup> 사회학자 한완상과 언론인 송건호가 서평란에서 서로의 저서를 번갈아 다룬 것<sup>18)</sup>, 철학자 차인석이 김형효의 철학서와 최정호의 언론학 저서를 잇달아 평한 것<sup>19)</sup> 또한 같은 맥락에 놓인다. 각 분과의 대표자들이 서로의 저작을 읽고 논평하는 이 회로야말로 잡지가 구축한 지식장의 실질이었다.

또 학술 논문 한 편 분량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계간지 투고와 달리 2, 3면 내외의 짧은 글을 배치하는 편제 역시 동일한 기획의 소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뿌리깊은 나무』는 분과의 대표자들을 회집시키면서 그들의 언어를 대중이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변주하였고 이로써 지식장의 축도는 전문가의 회의장을 벗어나 불특정 독자가 동일한 기준 아래 열람할 수 있는 지면으로 옮겨졌다.

이처럼 『뿌리깊은 나무』가 천착한 또 하나의 축은 언어였다. 대중의 글과 학문의 글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창간호의 선언 아래 해당지는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옮기는 원칙을 폐간까지 고수하였다. 한창기는 창간사에서 잡지에 실리는 글을 우리말과 그 짜임새에 맞추어 “지식 전달의 수

17) 해당 평문은 이어지는 장에서 더욱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18) 한완상, 「송건호의 『한국 민족주의의 탐구』」, 『뿌리깊은 나무』, 1978.1; 한완상, 「어눌하지만 씩씩한 소리: 송건호의 『한국 현대사론』」, 『뿌리깊은 나무』, 1979.4; 송건호, 「한완상의 『증인 없는 사회』」, 『뿌리깊은 나무』, 1977.4; 송건호, 「한완상의 『민중과 지식인』」, 『뿌리깊은 나무』, 1978.8.

19) 차인석, 「쾌락과 고통을 담은 살로서의 철학: 김형효의 『현실에서의 철학적 접근』」, 『뿌리깊은 나무』, 1976.9; 차인석, 「최정호의 『정치와 언어』」, 『뿌리깊은 나무』, 1977.10.

단이 지식 전달 자체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sup>20)</sup> 잡지의 한글전용 원칙과 일련의 기획은 학문과 토박이 민중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전문 지식을 경계 없이 배포하려는 학문적 지향의 언어적 실천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균형의 원리가 지면의 모든 층위에 동일한 방식으로 관찰된 것은 아니었다. 편집진은 자신들의 편집 원리를 ‘저울대’<sup>21)</sup>에 빗댄 바 있는데, 한쪽의 목소리만 커져 지면이 위태롭게 쏠리는 일을 막고자 그에 맞서는 또 다른 목소리를 저울의 맞은편에 얹어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곧 저울대란 어긋나는 목소리들을 지워 하나로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그 어긋남을 나란히 얹어 기울기를 드러내는 장치였다. 편집진은 저울대 영점 그 자체, 즉 각 분과의 비중은 강한 편집권을 통해 고르게 맞추었으나, 비평과 서평 지면의 저울에서는 그 무게가 기우는 것이 드러나도록 그대로 두었다. 어느 진영에 미리 무게를 실어 주는 대신 저울의 기울기 자체를 독자의 눈앞에 드러내는 태도는 이 잡지가 당대 문학장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편집 주체의 재량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지대했던 잡지인 만큼 관련 회고에는 그 강력한 편집 방식을 증언하는 일화들이 거듭 등장한다.<sup>22)</sup> 편집진이 문인들에게 특정 기사를 직접 청탁하였다는 것, 원로 소설가들의 원고까지 우리말 원칙에 따라 수정하는 일을 감행하였다는 것, 필자의 정치적 이력 생성이 목적으로 보이는 원고는 반려하였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편집진은 이처럼 강고한 편집권을 행사하

20) 한창기, 「도량을 파기도 하고 보를 막기도 하고: 창간사」, 『뿌리깊은 나무』 창간호, 1976.3, 170~171면 참조.

21) 「편집자의 말」, 『뿌리깊은 나무』, 1978년 1월호, 11면. 편집진은 이 글에서 ‘진실이 무엇이나에 대한 엇갈리는 의견들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언론의 최소한의 기능으로 전제한 뒤, 한쪽의 진실만을 앞세우는 힘에 맞서 ‘또 하나의 진실’을 ‘저울대의 한쪽에 놓음으로써’ 지면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게 하는 것’을 막는 일을 자기 소임으로 밝힌다. 본고는 이 ‘저울대’를 강한 편집권과 개방적 지면이라는 상반된 두 원리가 균형을 이루는 편집 원칙을 가리키는 개념어로 삼는다.

22) 강운구 외, 앞의 책, 18, 54~56, 63~64면 참조.

면서도 이것이 지면의 획일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자기 규율을 천명하였고, 이는 주지한바 상반된 의견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저울대가 되겠다는 편집 원리의 고수였다. 해당지는 의도적으로 논쟁 구도를 조성하기도 하였는데, 1976년 이이화가 역사소설 『장길산』의 고증을 문제 삼자 다음 호에 황석영의 반박을, 그 다음 호에 이이화의 재반론을 실어 석 달에 걸친 지상 논쟁을 성사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편집진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주지 않은 채 논쟁의 왕복 자체를 지면의 성과로 삼았다.

내적 통일성이 강고했던 이 잡지에서 비교적 돌출적인 텍스트는 문학 작품과 예술비평, 대중문화비평, 그리고 서평이었다. 시와 소설은 원문 그대로 수록되었으며 예술비평과 서평은 여타 기사에 비해 편집진의 윤문과 퇴고를 적게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뿌리깊은 나무』에는 창간호부터 폐간 직전 호까지를 아울러 총 102편의 서평이 실렸고 여기에는 상이한 정치적 성향과 문학관을 지닌 문인과 지식인이 두루 참여하였다. 강한 편집권을 표방한 잡지가 유독 이 지면들에서만은 개입을 자제하였다는 사실은 편집 주체들이 비평의 성립 조건, 곧 평자의 판단이 편집자의 판단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문화 기획에 집중되어 있던 편집의 시선이 문학 지면에는 상대적으로 덜 미치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지면들은 잡지의 중핵이 아닌 주변에 자리했던 까닭에 오히려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자율성은 무제한으로 담보된 것은 아니었다. 편집진의 불개입은 비평의 내용에 국한되었고, 비평이 놓일 자리, 곧 코너의 편제와 배치는 여전히 편집의 소관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네트의 곁텍스트(paratexte) 개념을 참고할 수 있는데, 주네트는 본문을 둘러싸고 그 수용을 조건짓는 일련의 장치들, 곧 표제와 서문과 주석 따위를 곁텍스트로 명명하고, 이를 텍스트와 동일한 물리적 단위 안에 놓인 주변텍스트(péritexte)와 그 바깥에 놓인 바깥텍스트(építexe)로 구분한 바 있다.<sup>23)</sup> 개별 기사를 하나의 텍스트로 놓고 볼 때, 잡지의 코너 명칭과 배열, 표제 상단의 요약문, 그리고 필자

이력을 소개하는 짧은 글은 그 기사를 둘러싼 주변 텍스트에 해당한다. 다만 주네트의 논의에서는 저자 혹은 출판 주체가 자신의 저작에 대한 독해를 유도하는 국면을 상정하고 있는 데 비해, 이 잡지의 경우 편집 주체가 조율하는 대상은 타인의 텍스트라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본고에서 이 개념을 원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문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지면을 조율하는 편집 행위의 충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주지한바 이 충위의 작동을 가장 뚜렷이 드러내는 것은 필자 소개란인데 일례로 백낙청의 머릿기사 상단에는 창비 편집위원이라는 이력이, 김병익의 글 상단에는 문지 주간이라는 이력이 먼저 소개된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해당 글을 한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특정 진영의 발화로 독해할 수 있도록 조건 짓는 장치이다. 편집진은 필자의 진영 표지를 삭제하는 대신 오히려 이 충위에서 두드러지도록 하였다. 기획 의도가 담긴 부제를 목차에서는 드러내지 않고 본문에만 배치한 민중 기획의 사례 역시 같은 충위에 속하는 데, 검열의 시선이 먼저 닿는 목차와 독자의 시선이 닿는 본문을 분리하여 운용한 이 편집술은 결텍스트가 검열을 우회하는 통로로도 기능하였음을 보여 준다. 즉, 비평과 서평란에서 편집진은 본문에는 되도록 손대지 않는 대신 코너의 편제와 배치를 통해 지면을 조율하였다. 서로 다른 진영의 문학론이 한 지면에 병치될 수 있었던 조건도 여기에 있었다.

### 3. 계간지 지형의 재현과 문학 지면의 재편

1977년 11월호에 실린 김병익의 「계간지가 이 땅에 뿌린 씨앗」은 『뿌

---

23) Gérard Genette,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trans. Jane E. Lew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1~15. 'paratexte'의 국역어로는 '결텍스트'가 통용되고 있어 본고 역시 이를 따른다. 자세한 사항은 박선희, 「번역문의 결텍스트 -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에 대한 정의」, 『번역학연구』 16, 한국번역학회, 2015 참조.

리깊은 나무』의 문학 지면이 지닌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텍스트다.<sup>24)</sup> 문지의 주간이었던 김병익은 이 글에서 창간을 전후한 세 계간지, 곧 『창작과비평』(1966)과 『문학과지성』(1970), 『세계의 문학』(1976)을 나란히 놓고 각각의 성격을 규정한다. 발행인 백낙청, 주간으로는 염무웅이 있는 『창작과비평』에 대해 그는 “참여론과 사실주의와 민족문학론을 제창”해온 잡지로서 “작품 평가 기준” 또한 “하층민들의 삶이나 농촌 생활의 어려움” 쪽에 둔다고 적으며 김광섭, 김정한, 이호철, 신경림, 조태일, 천승세, 방영웅을 아끼는 경향을 보이고 경제학 논문, 그중에서도 노동 문제를 다룬 논문을 자주 신는다고 소개한다. 이에 비해 김병익 자신을 포함하여 김주연, 김치수, 김현, 김종철, 오생근이 편집위원인 『문학과지성』은 “문학에서의 이데올로기 쪽보다 문학 자체로서의 독립성과 연구 방법론과 작가론 쪽에” 힘을 들이며 황순원, 김춘수, 박재삼, 최인훈을 좋아하고 황동규, 정현중, 이청준, 조해일, 조선작, 최인호, 윤홍길, 송영이 자주 드나든다고 밝힌다. 김병익은 이러한 대비를 다음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

요컨대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은 다 같이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앞의 것은 평등에, 뒤의 것은 자유에 우선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sup>25)</sup>

또한 김우창과 유종호가 이끄는 『세계의 문학』에 대해서는 창간 1년 남짓이라 성격을 규정하기 이르다면서도 외국 문학의 소개와 해설에 그 특징이 있다고 적는다.<sup>26)</sup> 이 글은 세 진영의 인적 구성과 미학적 지향,

24) 김병익, 「계간지가 이 땅에 뿌린 씨앗」, 『뿌리깊은 나무』, 1977.11, 50면.

25) 위의 글, 같은 면.

26) 김우창과 유종호를 중심으로 운영된 『세계의 문학』은 실제로 창비나 문지처럼 동인적 결속이 강한 잡지는 아니었으며, 심미적 교양주의를 중심으로 비교적 느슨하게 묶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 세 잡지를 모두 ‘진영’이라 아꼈으나 그 내부의 응집력이 모두 같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나아가 그 정치적 함의까지를 당사자의 언어로 정리한 것으로, 이후의 문학사 서술이 창비와 문지를 평등과 자유의 대립항으로 도식화해 온 연원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도식이 다름 아닌 문지의 주간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기억해 둘 만하다.

그러나 본고가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진영 구분 자체가 아니라 김병익이 도달하는 매체론적 통찰이다. 그는 계간지들이 “저마다의 문학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처지를 선택하고 자신의 성격을 뚜렷이” 하는 개성적 매체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다 하면 우리나라의 신문이나 잡지처럼 이쪽 저쪽의 상반된 의견이 한곳에 실려 주고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잡지와 저 잡지 사이에서 벌어지기 마련”이라고 진단한다. 나아가 그는 상반된 의견을 한자리에 모으는 신문의 관행을 “절충주의이고 무개성한 태도의 반영에 불과하다”고까지 단언한다. 개성화된 매체들 사이에서 논쟁이 발생하고 그 논쟁이 학파와 유파를 낳으며 종래에는 한 나라의 문화를 풍부하게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중요한 것은 김병익이 그린 이 지형도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1960년대 후반의 분화를 거쳐 비로소 형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훗날 염무웅은 창간 초기의 『창작과비평』이 “특정한 이념으로 뭉친 단일한 성격의 집단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성향으로 뻗어 나가게 될 (...) 여러 성향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연합과 같은 성격”을 지녔다고 술회한 바 있다.<sup>27)</sup> 실제로 김현과 김주연은 염무웅보다도 먼저 창비의 필자로 등장한 바 있으며, 『세계의 문학』의 김우창과 유종호 또한 초기 창비의 주요 필자였다.<sup>28)</sup> 1960년대 후반의 창비가 대향한 대상은 젊은 세대 내부가 아

27) 김병익·염무웅,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을 말한다: 김병익, 염무웅 초청 대담」(사회: 백영서), 『동방학지』 16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 267면.

28) 위의 글, 같은 면. 염무웅은 “문지를 주도한 사람들 가운데 김병익 형은 빠고, 김현이나 김주연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창비 필자로 등장”하였다고 술회하며, 김우창과 유종호 역시 “초기 창비의 주요 필자”였다고 덧붙인다.

니라 『현대문학』으로 대표되는 문협 주류였던 까닭이다. 이렇게 보면 세 진영의 분립은 참여론과 리얼리즘론을 계기로 뒤늦게 성립한 것이며, 그 이전에는 4·19세대라는 공통의 자리가 이들을 느슨하게 묶고 있었다.

김병익의 회고에 따르면 창비와 문지가 서로 필자를 교환하여 각자의 지면에 상대 진영의 글을 실은 것은 1974년 백낙청의 해직을 전후한 시기 한 차례에 그쳤으며, 그는 이를 두고 “창비, 문지 이름으로 거의 유일하게 서로 교환해서 한”<sup>29)</sup> 작업이라 회고한다. 각 계간지들 사이에서는 예외적 사건이었던 교차 투고가 종합교양지의 지면에서는 상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 잡지에서 비롯된 문학사적 장면을 재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의 역설이 발생한다. 상반된 의견을 한 지면에 모으는 일을 무개성의 소산으로 규정하는 이 글은 바로 그 종합교양지의 지면에 게재되었기 때문이다. 김병익이 절충주의라 명명한 편집주의를 이 잡지의 편집 원칙인 저울대의 원리와 함께 상기하면 그의 단언은 저울대 위에서 수행된 저울대 비판, 즉 체제 비판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그 지면은 김병익 자신이 견제 대상으로 삼은 창비 계열 필자들과 그가 성격 규정을 유보한 『세계의 문학』의 김우창이 나란히 글을 실는 자리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글은 당대의 계간지 시장을 일별한 것은 물론 계간지 바깥의 지면에서 각 진영이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을 보여 주는 사례로도 파악할 수 있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계간 문예지들이 문학장의 ‘자율성의 극’에 밀집해 있었던 데 비해 종합교양지는 문학장의 경계 바깥, 곧 지식장과 문화시장에 걸쳐 있는 매체였던 까닭이다. 이때 지식장은 분과 학문과 언론, 출판물을 가로질러 지식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담론의 장을 가리키며 문학장의 외부가 아니라 문학장을 하위 장으로 포함하는 상위의 장을 의미한다. 서

29) 위의 글, 285면.

은주에 의하면 1970년대의 한국 지식장은 냉전체제와 검열이 수용을 규율하는 가운데 서구 비판 담론이 번역을 매개로 파편적으로 전유되고, 그렇게 유입된 개념들이 사회과학과 신학, 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변용되던 공간이었다. 이 지식이 오간 곳에는 강단뿐 아니라 잡지도 있었다. 실제로 마르쿠제의 논문을 번역해 게재한 창비의 사례가 보여 주듯 계간 문예지들 또한 이 지식장의 주요 행위자였다. 다만 문학 담론 안으로 들어온 지식은 이내 각 진영의 쟁점과 맞물려 다시 번역되곤 했는데 소외론이 예술의 자율성을 둘러싼 논쟁 구도로 흡수된 경위가 그 예시이다.<sup>30)</sup>

이에 비해 종합교양지의 지면에서는 분과의 지식들이 어느 진영의 이념으로도 수렴되지 않은 채 문학과 나란히 놓였다. 계간지와 종합교양지는 같은 지식장에 속했으나 그 안에서 문학이 놓이는 자리는 달랐다. 문인들이 이 지면으로 나아가는 행위는 자기 진영의 상징자본을 보다 넓은 제3의 장에 기입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진영 논리의 구속력이 이완되는 시대로의 이동이기도 했던 것이다.<sup>31)</sup> 취향이 구분하는 동시에 “분류하는 자를 분류한다”는 부르디외의 명제를 상기하면,<sup>32)</sup> 각 문학 진영의 문학과 어휘가 이 지면에 나란히 놓이는 일은 그 자체로 진영들의 위치를 문학장 바깥의 독자 앞에 판별 가능한 차이로 전시하는 국면이기도 했다.

이상이 지면 위에 재현된 계간지 지형의 전모라면 이제 그 지형이 잡지 자체의 편제에 어떻게 새겨졌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계간지

30) 서은주, 「냉전의 지식문화 - 1960~1970년대 소외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7, 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405면 및 427면 참조.

31) 피에르 부르디외, 하태환 옮김, 『예술의 규칙: 문학 장의 기원과 구조』, 동문선, 1999. 장 내 위치(position)와 위치취하기(prise de position)의 상동성에 관한 논의는 305면 이하, 문학 장의 자율성 획득 과정에 관한 논의는 73면 이하 참조. 부르디외는 상징적 가치의 논리가 관철되는 자율성의 극과 외적 수요의 논리가 관철되는 타율성의 극을 구분하는데, 본고가 계간 문예지와 종합교양지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원용하는 개념이 이것이다. 아울러 경제자본으로 환원되지 않는 문화자본·상징자본 개념에 관해서는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 새물결, 2005, 13면 이하의 개념 해설 및 170면 참조.

32) 피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 최종철 옮김, 새물결, 2005, 30면.

지형이 이 잡지의 지면 내부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가장 뚜렷한 지표는 문학비평란의 담당자 계보다. 창간호의 예술비평란 문학 부문은 소설가 이병주가 맡았고 3호에서는 정창범이 손창섭론을 실었다가, 6호에 이르러 『세계의 문학』의 유중호가 「기구한 삶과 진지한 모험」<sup>33)</sup>을 기고하게 된다. 이후 7호부터 12호까지는 필자명을 ‘ㄱ’이나 ‘ㅇ’과 같은 한 글자로 표기하는 익명 체제가 유지되다가 13호와 14호부터 문지의 김주연이 「고삐 쥐기와 선거 놀음」과 「새 소설을 낳는 출판사」를 잇달아 발표하고<sup>34)</sup> 16호부터는 김현이 「환상과 현실」을 필두로 51호까지 이 자리를 전담하게 된다. 폐간을 앞둔 52호와 53호는 김천혜가 이어받았다.

이 계보가 시사하는 바는 명료하다. 문학비평란의 담당 주체가 『세계의 문학』으로부터 『문학과지성』으로 이행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이행은 김현 개인의 진입이라기보다 김주연을 경유한 문지 계열의 점진적 장악이었다는 것이다. 익명 체제가 고수되었던 7호부터 12호까지의 국면 또한 주목을 요한다. 이 시기의 문학 비평은 「“너 좋고 나 좋고”식의 무책임한 평가」, 「두 잡지가 함께 신는 〈토지〉」, 「없어져도 될 잔치」처럼 문단의 관행 자체를 지적하는 표제를 달고 있는데, 필자를 초성으로 감춘 이 체제는 문학만이 아니라 연극 등 예술비평란 전반에 적용된 것으로 필자로 하여금 문단의 이해관계와 인적 관계에 매이지 않고 발언하도록 하여 비평의 자유도를 높이려는 장치였다. 익명 연재를 마감하며 편집진은 이 여섯 달의 운용이 “비평받는 사람과 비평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안면’이라는 벽을 없앴으로써 좀 더 비평의 효과를 높여 보려는 시도”였다고 밝히고 소기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필자의 이름을 감추는 것이 늘 유익한 것만은 아니므로” 다음 달부터 실명을 밝히겠다고 공지하였다.<sup>35)</sup> 인적 관계의 구

33) 유중호, 「기구한 삶과 진지한 모험」, 『뿌리깊은 나무』, 1976.8.

34) 김주연, 「고삐 쥐기와 선거 놀음」, 『뿌리깊은 나무』, 1977.3; 김주연, 「새 소설을 낳는 출판사」, 『뿌리깊은 나무』, 1977.4.

35) 「알립니다」, 『뿌리깊은 나무』, 1977.2, 26면.

속을 걷어 내어 비평의 자유도를 높이려 고안된 이 장치는 그러나 결국 논쟁으로 이어졌다. 1977년 1월호 연극 비평란의 익명 필자 ㄱ이 번역극과 창작극의 공존론을 펴자 편집진은 다음 호에 마광수의 실명 반론 「얼버무림은 좋지 않다」를 실어 그 절충적 태도와 서구 중심의 준거를 논박하게 하였고, 위의 익명 기고 체제 마감 공지는 바로 이 반론의 말미에 붙어 있었다.<sup>36)</sup> 익명의 발화 가까이에 기명 반론을 얹히고 해당 체제를 수정·재편한 이 편집 조치는 익명의 체제가 책임의 회피가 아니라 인맥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논의를 유도한 장치였다는 편집진의 공지를 뒷받침한다. 여섯 달의 시한을 두고 운용된 뒤 효과를 자평하며 마감된 이 체제는 편집 주체가 문학 지면을 진영의 대리인에게 온전히 위임하기에 앞서 수행한 한시적 실험으로 볼 수 있다.

편집위원의 층위에서 이에 대응하는 사건은 김우창에서 김현으로의 교체다. 1978년 4월호의 「편집자의 말」은 초대 편집위원 열네 명 가운데 아홉이 빠지고 “나이가 채 마흔이 못 된 젊디 젊은 ‘새 세대’”의 다섯이 새로 참여했음을 밝히며 이 재편을 “세대 교체”라 명명하였다.<sup>37)</sup> 이로써 김우창은 1기, 김현은 2기 편집위원에 속하게 되어 두 사람의 지면 활동 자체는 시기적으로 겹치되 편집위원으로는 함께한 바 없으므로 문학 평론 부문에서도 일종의 세대 교체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김우창이 이 잡지에 직접 기고한 글은 세 편에 지나지 않으나 그 세 편 모두 각 호의 머릿기사로 배치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창간호의 「비범한 삶과 나날의 삶: 삼일운동과 근대문학」은 그 첫 편으로 김우창은 여기서 한국 근대문학의 성립을 3.1운동과 결부시키며 염상섭

36) 마광수, 「얼버무림은 좋지 않다 - 「무엇이 우리 연극이나」를 따진다」, 『뿌리깊은 나무』, 1977.2. 당시 강원대학 강사였던 마광수는 전호 연극 비평란에 실린 익명 필자 ㄱ의 글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적당한 얼버무림”이라 비판하며 연극의 가치 기준을 서구에 두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37) 「편집자의 말」, 『뿌리깊은 나무』, 1978.4.

의 「만세전」을 그 정점으로 꼽는다.

식민지의 착취 속에 황폐해 가는 사회의 압력은 소설가로 하여금 사회 전체, 나아가서 삶의 착잡한 얼크러짐의 전체를 하나의 통통 연관 속에 인식할 수 있게 한다.<sup>38)</sup>

개인의 일상적 삶과 그것을 감싸는 역사의 세계를 하나로 거머쥐는 의식, 곧 개체와 전체의 유기적 연관을 포착하는 인식이야말로 근대문학의 조건이라는 이 명제에는 사회학적 분석과 미학적 성찰을 아우르는 김우창 평론 특유의 성질이 잘 드러나 있다. 그의 비평 세계는 시대의 윤리와 개인의 삶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교직되며 그 원리 면에서 마침내 일치하는 지평을 지향하는데, 전통의 발굴을 표방하되 심미안을 무엇보다 중시하였던 『뿌리깊은 나무』의 성격과 이 지향이 정확히 포개진다는 점이야말로 이 평문이 창간호의 얼굴이 된 까닭일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평문이 3.1운동을 전유하는 방식이다. 창간호의 머릿기사가 3.1운동과 근대문학의 관계를 논하는 문학평론이었다는 사실은 이 잡지가 출발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민족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음을 드러낸다. 토박이 문화의 발굴과 우리말의 회복을 표방한 매체가 그 이념적 정당성을 3.1운동이라는 민족사의 원점에서 구하되 그를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문학평론의 형식으로 수행한 것이다. 특히 이후 손세일이 이 글을 두고 『뿌리깊은 나무』가 시사성을 나타낸 방법의 본이라 평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sup>39)</sup> 김우창의 평문은 잡지의 이념을 문학의 언어로 번역한 창간 선언의 성격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38) 김우창, 「비범한 삶과 나날의 삶. 삼일운동과 근대문학」, 『뿌리깊은 나무』, 1976.3, 47면. 이 글은 이후 「현대소설의 형성」으로 표제를 바꾸어 그의 평론집에 수록된다.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참조.

39) 강운구 외, 앞의 책, 53면.

두 편, 곧 「산업 시대의 물건과 욕망」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산업 시대의 미학과 인간」 역시 같은 결 위에 놓인다. 산업사회의 소비와 미학을 주제로 한 이 평문들은 김우창의 관심이 산업사회의 물화에 대한 비판과 도구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심미적 이성의 주장으로 이동해 간 궤적과 부합한다. 창간기의 잡지가 토박이 문화의 발굴을 통해 개발주의를 상대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던 것을 감안하면 산업 시대의 인간을 심미적 이성의 시좌에서 성찰하는 그의 평문이 세 차례나 머릿기사로 선택된 현상은 자연스럽다. 즉, 초기의 『뿌리깊은 나무』와 김우창은 산업화 비판이라는 의제를 공유하되 그 방법을 각각 문화 기획과 비평적 사변으로 달리한 동반자였던 셈이다.

한편 이로부터 3년 뒤인 1979년 4월호의 머릿기사로는 백낙청의 「민중의 이름과 얼굴」이 배치된다. 백낙청은 이 글에서 민중을 다수의 국민이자 지배받는 대중으로 정의하고, 이 낱말을 수상쩍게 보는 시선을 향해 “환자가 열이 있다고 말해 주는 의사를 미워하거나 신열을 표시하는 체온기를 욕하는 꼴”이라 응수한다.<sup>40)</sup> 나아가 그는 근대의 민중 지배는 “마치 그것이 지배가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고” 나타난다며 민중이 형식적 주권자를 넘어 실질적 역사의 주인이 되는 길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시기의 백낙청이 민족문화론으로부터 민중문화론으로 논의를 전환해 가던 중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글은 창비 진영의 이론적 전환이 진행되던 현장의 발화로 파악될 수 있고 그 발화의 무대가 『창작과비평』이 아니라 『뿌리깊은 나무』의 머릿기사란이었다는 점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김현이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호인 1978년 4월호의 머릿기사는 그의 「대중 문화의 새로운 인식」이었다. 김현은 이어령이 1967년에 선언한 대중문화 시대의 개막을 실마리로 삼아 사전 속 ‘대중’의 의미 변천을 추적하고 『주간 한국』과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흥기가 인기의 판

40) 백낙청, 앞의 글, 52면.

도를 어떻게 재편하였는가를 자신의 체험을 곁들여 서술한 끝에 다음과 같은 진단에 이른다.

대중이 대중 문화의 능동적인 주체자가 아직 못 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 문화는 대중 매체의 대중화 현상에 중독되어 있다.<sup>41)</sup>

이 글에서 문학은 더 이상 자족적 예술이 아니라 매체들의 경쟁 속에 놓인 하나의 문화 형식으로 다루어진다. 이상으로 살핀 머릿기사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동일한 자리가 심미적 이성과 민주론과 매체론이라는 세 진영의 핵심 명제를 차례로 제시하였음이 드러난다. 문학장의 상이한 위치들이 하나의 지면에서 각 위치에 해당하는 발화를 수행한 것이며 잡지는 그 발화들을 조정하는 대신 필자 소개란에 각자의 소속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차이를 가시화하였다. 지면의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머릿기사에서도 이 저울의 기울기는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저울대’의 원리는 이처럼 편제의 정점에까지 관철되었다. 김우창에서 김현으로의 교체는 이 맥락에서 볼 때 단지 개인적 교체에 그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잡지가 문학을 다루는 무게중심 역시 심미적 사변에서 대중문화와 매체의 문제 쪽으로 옮겨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머릿기사가 각 진영의 핵심 명제를 게재하는 자리였다면, 문학 지면의 일상적 운용은 예술비평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현이 1977년 6월호부터 폐간 직전까지 전담한 예술비평란은 문지의 문학론이 종합교양지의 지면에서 발화되고 검증된 자리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 지면을 김현 비평의 도정과 잡지 이념이 공명한 자리로 독해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여기에 문지라는 진영의 위치를 함께 놓고, 김현의 글이 문학장 바깥의 독자 앞에서 어떠한 발화로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살피고자 한다. 두 독법

41) 김현, 「대중 문화의 새로운 인식」, 『뿌리깊은 나무』, 1978.4, 42면.

의 차이는 김현의 텍스트가 잡지 이념과 합치하는가가 아니라 그 텍스트가 진영 간 지형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가를 묻는 데에 있다.

예술비평란에서 김현이 수행한 작업은 문학장의 지형을 조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문학이라는 범주의 경계를 손보는 데까지 나아갔다. 주목할 것은 이 재편이 그의 편집위원 활동보다 앞서 예고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편집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인 1977년 1월호에 발표한 「만화는 문학이다」에서 김현은 만화를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여 만들어낸 예술”로 승인함으로써 활자 서사의 바깥에 있던 인접 양식을 제목의 단언 그대로 문학의 이름 아래 불러들인 바 있다.<sup>42)</sup> 만화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 본격적인 글쓰기가 이보다 한참 뒤에 등장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대중 장르 비평 중 이른 사례에 속한다. 그러나 이 작업은 김현 한 사람만의 몫은 아니었다. 같은 시기 대중문화비평란에서는 문지 계열 시인 오규원이 만화 비평을 전담하며 만화를 독자적 예술 양식으로 다루고자 하였다.<sup>43)</sup> 김현이 만화를 문학의 내부로 끌어들이고 오규원이 그 바깥에 자유훈의 자리를 마련한 이 과정은 대중문화의 일환인 만화를 비평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두 방향의 작업이 맞물린 결과였다. 이 재편은 만화에 국한되지 않았다. 역시 편집위원 위촉 이전인 1977년 7월호의 「문화의 ‘코메디」」에서 김현은 신문이 문예 기사에는 국한문을 쓰면서 연재소설에만 한글을 쓰는 관행이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간극을 제도화한다고 비판하고, “‘고급 문화’는 ‘저급 문화’의 반대어이지, ‘대중 문화’의 반대어는 아니”라는 단언으로 그 대립 자체를 해체한 뒤, 최인호와 박완서의 신문소설에서 “고급화된 대중 문화”의 보기를 찾는다.<sup>44)</sup> 국한문의 관행을 겨냥한 이 비판은 대중의 글과 학문의 글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앞서 살핀 잡지 창간사의 언어 원칙과 정확히 겹친다. 만화 비평을 상설의 자리에 둔 대중

42) 김현, 「만화는 문학이다」, 『뿌리깊은 나무』, 1977.1, 66면.

43) 오규원, 「왜 만화가 귀하냐」, 『뿌리깊은 나무』, 1979.4, 100면.

44) 김현, 「문화의 ‘코메디」- 신문 소설과 대중 문화」, 『뿌리깊은 나무』, 1977.7, 21면.

문화비평란의 편제가 보여 주듯 고급과 대중의 위계를 허무는 일은 잡지가 스스로 벌여 온 문화기획이기도 했으니, 김현의 매체 비평 역시 개별적 기고이기 전에 잡지가 지속해 온 문화기획과 공명하며 이 지면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시와 소설의 울타리 안에서 운용되던 당대 문예지의 비평 관행에 비추어 보면 김현의 매체론은 잡지가 그를 편집위원으로 택하기 전에 이미 지면에 당도해 있었으며, 일련의 글은 이후 그가 이 지면에서 점하게 될 조망의 위치를 미리 보여 준다.

이 위치가 가장 선명하게 노출되는 것은 1979년 7월호의 「사회학이 문학을 만난 까닭」이다. 앞서 언급한 유재천의 신문소설 분석이 발표된 한국사회학대회 관련 논평을 하던 가운데 김현은 김우창이 엮은 『예술과 사회』를 검토하며 그 책에 “문학-예술 형식의 사회적인 의미보다는 문학-예술의 사회적인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백낙청, 염무웅, 구중서, 임현영 같은 비평가들의 글이 실려 있지 않다는 약점”이 있다고 적는다.<sup>45)</sup> 문지의 김현이 『세계의 문학』의 김우창을 평가하면서 창비 계열의 비평가 넷을 실명으로 호명하는 이 문장 안에서 세 진영은 동시에 현전한다.

같은 성격은 1979년 2월호의 「두 비평가의 또렷한 눈」에서도 확인된다. 김현은 오생근과 김종철의 평론집을 나란히 놓고 두 사람이 순수참여 논쟁을 각기 어떻게 계승하였는가를 대비한 끝에 “순수참여 논쟁이 실천과 이론이라는 문제로 심화되어 있음을 깨닫는다”고 결론짓는다.<sup>46)</sup> 진영 대립의 도식을 심화된 형태로 번역해 내는 이 작업은 대립된 측의 어느 하나를 견지하는 대신 그 대립을 조망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979년 1월호의 「잘 팔린다고 나무랄까?」에서도 70년대 작가들을 향한 상업주의 비난을 가리켜 “책상을 책상이라고 비난하는” 동어반복이라 비판하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술가까지도 사실은 장사꾼”이라며 사실은 “나도 그 상업주의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고 쓸 수 있었던 것<sup>47)</sup> 역시 이러한 맥락

45) 김현, 「사회학이 문학을 만난 까닭」, 『뿌리깊은 나무』, 1979.7, 14면.

46) 김현, 「두 비평가의 또렷한 눈: 오생근과 김종철의 평론집」, 『뿌리깊은 나무』, 1979.2, 14면.

의 일환이다.

김현이 문학상의 지형을 읽어내는 방식은 제도의 층위에까지 미친다. 1978년 1월호의 「문학상의 권위」에서 그는 잡지사들이 앞다투어 문학상을 제정하는 현상을 검토하며 상이 표방하는 성격이 곧 그 상을 주관하는 매체의 문학적 입장과 겹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만해문학상이 한용운의 정신을 이어 역사의식이 투철한 작품에 주어진다면 이상문학상은 이상의 반역사주의적 개성 의식에 투철한 작품에 주어진다는 것이며, 그는 이를 두고 “그 두 잡지의 편집자인 백낙청과 이어령의 문학적인 입장의 밝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적는다.<sup>47)</sup> 문학상이라는 제도를 매체의 이념이 물질화된 형태로 읽어내는 이 시각은 앞서 김병익이 계간지의 개성을 논한 방식과도 대응된다. 다만 김현은 성격이 뚜렷한 두 상에 대해서는 비난할 것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상의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 심사위원 선정에 실무자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진영의 선명성을 결함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의 조건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태도를 통해 이 지면에서 그가 취한 위치가 드러나는데, 이는 문협 주류를 향할 때 한층 선명해진다. 1978년 12월호의 「김동리에게 청한다」에서 김현은 노대가의 근작 단편을 고평가하면서도 그의 최근 활동에 두 가지 저항감을 느껴 왔다고 밝힌다. 초기작을 거듭 손보는 개작 버릇이 그 하나이고 문학의 공리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다른 하나다. 흥미로운 것은 김현이 후자를 비판하는 논법이다. 그는 문학을 선전문으로 만드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김동리와 견해를 같이한다고 전제한 뒤 사회의 부조리를 들추는 것이 곧 계급의식의 고취는 아니며 사회적 상상력에 기대어 문학에 접근하는 일은 양식사적 접근이나 정신분석학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매듭짓는다.

47) 김현, 「잘 팔린다고 나무랄까?: 문학의 상업주의」, 『뿌리깊은 나무』, 1979.1, 19면.

48) 김현, 「문학상의 권위: 작가와 작품과 상」, 『뿌리깊은 나무』, 1978.1, 14면.

문학은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그 주장까지도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sup>49)</sup>

문학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주장 자체가 정치적 도구로 전략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이 문장은 김현의 자리가 참여론은 물론 그 대척점에 놓인 순수문학론과도 구별됨을 보여 준다. 창비의 공리성 요구와 문협의 순수문학론을 동시에 상대화하는 이러한 평문은 종합교양지의 지면에서 발화됨으로써 오히려 객관성을 획득하게 된다.

한편 그의 진영을 아우르고 횡단하는 독법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사례는 1979년 12월호의 현기영론이다. 김현은 여기서 현기영이 잇달아 발표한 세 편의 소설, 곧 『창작과비평』의 「순이 삼촌」과 『문학과지성』의 「도령마루」와 『문예중앙』의 「해룡 이야기」를 한자리에 놓고 읽는다.<sup>50)</sup> 세 진영의 지면에 흩어져 발표된 작품을 하나의 계열로 묶어 낸 이 독해에는 역시 진영의 좌표로부터 자유로웠던 종합교양지 지면의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작업이 이 지면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으나 문지의 재수록 제도가 뛰어난 작품을 자기 지면으로 호명하여 문학적 태도를 강화하는 선별 절차였다면, 김현의 이 독해는 그러한 선별과 무관하게 계간지 체제 이해관계 밖의 월평의 자리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는 이들 소설을 김승옥과 이청준으로부터 김원일과 한승원과 전상국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 배치한 뒤, 사십대 남한 작가들의 심리적 외상은 가난이나 성욕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발원한 것이며 유년기에 강요된 선택 불가능성이 억압의 정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그 억압이 197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의식화되었다는 사실에서 “문화적인 궁지”를 느낀다고 적는다. 문화란 사회적 억압을 의식화하여 그 부정적 성격을 지우려는 노력이라는 그의 규정은, 검열의 시대에 문학이 감당한

49) 김현, 「김동리에게 청한다: 단편 소설 「참외」를 읽고」, 『뿌리깊은 나무』, 1978.12, 14면.

50) 김현, 「현기영이 느끼게 해 준 궁지: 그의 세 소설」, 『뿌리깊은 나무』, 1979.12, 14면.

몹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기도 했다. 실제로 여기서 다루어진 「순이 삼촌」은 게재 여부를 두고 창비 편집진이 고심한 끝에 실은 작품이었고 필자인 현기영은 발표 이후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으니,<sup>51)</sup> 김현의 이 평문은 진영을 달리하는 지면에 발표된 작품들이 그 바깥의 자리에서 하나의 성과로 논평된 사례로 남는다.

이러한 조망의 위치가 지면의 구조와 맞물려 만들어 낸 국면은 1978년 9월호에서도 관찰된다. 이 호의 예술비평란에서 김현은 천금성의 『허무의 바다』와 박영한의 『머나먼 송바강』을 나란히 놓고 원앙 어업과 월남 파병이라는 소재가 한국 소설의 지리적 공간을 넓힌 사정을 논한다. 해방 이후 만주가 떨어져 나가고 일본과 이북이 기피된 자리에 미국과 유럽이 들어섰다는 진단 위에서 그는 두 작가가 여기에 큰 어장과 월남을 더하였다고 평가하되 지리적 확대가 독자의 내면 공간을 함께 넓히지 못한다면 새로움을 위한 새로움에 그칠 수 있다고 유보한다.<sup>52)</sup> 그런데 같은 호의 서평란에서 창비의 임현영이 다룬 저서 또한 박영한의 『머나먼 송바강』이었다.<sup>53)</sup> 같은 호의 서평란에서 임현영은 스페인 내전에 참여한 세계 지식인들의 계보를 경유하여 이 작품을 국제 분쟁 문학의 자리에 배치하고 작가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타민족의 고통을 얼마나 성실하게 관찰하였는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동일한 호의 두 지면에서 문지의 비평가와 창비의 비평가가 같은 작품을 각기 다른 준거로 논평하는 이 배치는 본고에서 살펴온 공존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드러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김현이 소설 공간의 확대라는

51) 김병의·염무웅, 앞의 글, 281면. 염무웅은 「순이 삼촌」이 문학적 성취와 사회적 파장이 모두 커서 부분적인 수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에 게재 여부를만을 결단해야 했다고 회고하며, 잡지에는 별 탈이 없었으나 필자가 이후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고 증언한다.

52) 김현, 「소설의 공간을 확 넓히는 힘: 천금성과 박영한의 세계」, 『뿌리깊은 나무』, 1978.9, 14면.

53) 임현영, 「월남의 강물 위에 뜬 한국의 얼굴: 박영한의 『머나먼 송바강』」, 『뿌리깊은 나무』, 1978.9, 168면.

형식적 층위에서 접근하였다면 임헌영은 제3세계 민중의 고통이라는 윤리적 층위에서 접근하였는데 이 두 독법의 차이는 그대로 두 진영의 문학론이 지닌 강조점의 차이에 대응된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 모두 이 작품이 한국 문학의 결핍을 메운다는 판단에서는 어긋나지 않는다. 물론 편집진이 이러한 배치를 의도했는지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하나의 작품이 같은 호의 서로 다른 지면에서 두 진영의 비평가에게 각각 논평되는 일은 흔하지 않았다. 이러한 장면이 가능했던 까닭은 편집진의 정교한 안배라기보다 비평의 저울이 논의의 무게에 따라 기울도록 두었던 원리와 문학 지면이 편집의 시선에서 다소 비껴나 있었던 사정에서 찾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 4. 서평란의 교차와 진영 바깥의 글쓰기

『뿌리깊은 나무』의 서평란이 문단 세력의 교호를 매개한 장치였음은 필자와 대상의 배치를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드러난다. 서평이란 대상 저서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평자 자신의 입지를 표명하는 형식으로, 상이한 진영에 적을 둔 이들이 상대 진영의 저작을 다루는 순간 그 지면은 문학론이 맞부딪치는 자리로 전화한다. 다만 그 맞부딪침이 견제 일변도가 아니었다는 점이야말로 이 지면의 특질이다. 앞 장에서 확인한 편집 체제의 이중 구조, 곧 비평의 저울을 논의의 무게에 맡기는 원리가 가장 여실히 관찰되는 지면이 바로 이 서평란이다.

『뿌리깊은 나무』의 서평란이 도중에 중단되지 않고 통권 53호 동안 102편에 달하는 규모로 유지된 데에는 편집위원이었던 김현을 위시한 문지 계열 인사들의 매체 경험이 일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서평란은 김현의 위촉에 앞서 설치된 지면이므로 그 존재 자체를 문지의 기획으로 볼 수는 없으나,<sup>54)</sup> 일례로 김병익은 신문사 재직 시절 외

국 잡지를 접하며 권위 있는 매체일수록 서평이 중심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고 서평만으로 지면을 채우는 격주간지 『뉴욕 리뷰 오브 북스』를 부러워했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모든 문화는 책으로 표현되고 그에 대한 검증은 서평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판단 아래 『문학과지성』이 국내 저작에 대한 서평을 지속적으로 실었다는 것이다.<sup>54)</sup>

다만 문지의 서평이 자기 진영의 판단을 축적하는 작업이었다면, 이 잡지의 서평란은 그 판단들이 서로 마주치도록 배치하는 자리였다는 점에 서 성격을 달리한다. 먼저 문지 계열 필자가 창비의 노선을 겨냥한 서평들을 꼽아보면, 1977년 10월호에서 시인 정현종이 창작과비평사에서 간행된 김준태, 강우식, 이성부의 시집 세 권을 한자리에서 다룬 것이 있다. 그는 이들의 시에 공통된 것이 약한 자에 대한 연민과 ‘한’의 정서임을 짚은 뒤, 약자를 거대화하려는 의지가 “꼭 기계적”이며 김준태의 문명 비판에는 “국수적인 취향이나 복고주의적이고 원시적인 취향”이 깃들어 있다고 평한다.<sup>55)</sup>

개별 시집이 아니라 한 출판사의 시집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대상화한 이 배치는 해당 서평이 창비 시학의 노선 전반을 의식한 것임을 시사한다. 한 달 앞선 1977년 9월호에서 김병익은 유종호와 염무웅이 엮은 좌담집 『한국문학,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루며 좌담에서 되풀이되는 민중 우위론과 소박한 모사론이 “전통 복고주의나 국수주의”로 변진다면 그것은 “정치나 돈에 의해 억눌리는 고통과 다를 바 없는 위험”을 주리라 경고한다.<sup>56)</sup> 두 편의 서평이 두 달 남짓한 간격을 두고 배치된 데에서, 문지 계열의 시인과 비평가가 서평란을 경유하여 대타 진영의 문학론을 견제하

54) 문지의 감각이 지면의 형식을 지탱하는 동안에도 그 위의 발화는 저술대의 원리에 따라 여러 진영의 필자들에게 열려있었던 것이다.

55) 위의 글, 289~290면.

56) 정현종, 「『창작과 비평』에서 나온 시집들」, 『뿌리깊은 나무』, 1977.10, 158면.

57) 김병익, 「유종호와 염무웅이 엮은 『한국문학, 무엇이 문제인가』」, 『뿌리깊은 나무』, 1977.9, 172면.

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런가 하면 역방향의 논의 또한 확인되는데, 1979년 9월호에서 임현영은 김병익의 평론집 『상황과 상상력』을 「상상력」보다 ‘상황’에 돌린 관심이라는 표제 아래 다룬다.<sup>58)</sup> 상상력과 상황이라는 이 대립쌍 자체가 문지와 창비 사이 쟁점의 축약이라는 점에서 표제의 선택부터가 이미 하나의 위치 표명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진영 바깥의 시선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1979년 7월호에서 조남현은 염무웅의 『민중 시대의 문학』을 평하며, “민중이란 말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민중적 현실을 모른다는 고백”이라는 발화를 인용한 뒤 “논리보다는 신념에 많이 의존하는 비평가일수록” 작품 전체를 통째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오류를 빚기 쉽다고 지적한다.<sup>59)</sup>

그러나 이러한 지면의 교차는 견제로만 흐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진영을 초월한 경의가 두드러지는 사례도 존재했다. 1977년 7월호에서 김종철은 김우창의 『궁핍한 시대의 시인』을 “전면적인 진실로의 지향”으로 요약하며 그 문체의 정밀함이 “사태의 참 모습에 이르려는 정신의 표현”이라고 평하였다.<sup>60)</sup>

1978년 5월호에서 이상섭 역시 백낙청의 『민족 문학과 세계 문학』을 두고 “다른 사람들의 평론집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한 이념의 일관성에 큰 감명을 받는다”고 적으면서도, 19세기 유럽 리얼리즘이 백여년을 뛰어넘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견해에는 “민족적인 당위론 말고도 실증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인다.<sup>61)</sup> 경의와 의문을 겸비한 이 서평에서 진영 간 교차는 논전이 아니라 상호 검토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58) 임현영, 「『상상력』보다 ‘상황’에 돌린 관심: 김병익의 『상황과 상상력』, 『뿌리깊은 나무』, 1979.9, 168면.

59) 조남현, 「논리와 신념: 염무웅의 『민중 시대의 문학』, 『뿌리깊은 나무』, 1979.7, 170면.

60) 김종철, 「김우창의 『궁핍한 시대의 시인』, 『뿌리깊은 나무』, 1977.7, 162면.

61) 이상섭, 「백낙청의 『민족 문학과 세계 문학』, 『뿌리깊은 나무』, 1978.5, 166면.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창비와 문지가 간행한 단행본을 다룬 평자의 좌표가 출판사의 좌표와 일치하지 않아 상대 진영 또는 제3의 필자에게 넘겨진 사례들이다. 문학과지성사에서 출판된 이청준의 『예언자』를 당시에는 창비 쪽에서 활동하던 김종철<sup>62)</sup>이 다루며 그를 “가장 중요한 현대 한국 작가 중의 한 사람”으로 평가하되 그 소설에서 받는 미진한 느낌의 정체를 묻는가 하면,<sup>63)</sup> 역시 문지에서 출판된 정명환의 『한국 작가와 지성』을 이상섭이 이광수 우상화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라 고평하고,<sup>64)</sup> 창작문화사에서 나온 전상국의 『바람난 마을』을 김윤식이 「무진 기행」과 「삼포 가는 길」을 잇는 ‘길’의 계보 속에 자리매김한 작업 등이 그것이다.<sup>65)</sup> 앞서 다루었던바 민음사에서 출판된 박영환의 『머나먼 송바강』을 창비의 임헌영이 스페인 내전 문학의 계보를 경유하여 조명한 것 역시 같은 성격의 배치다. 진영의 경계와 출판사의 경계, 그리고 서평자의 경계가 서로 어긋나며 교차하는 이 양상은 서평란이 진영의 방어선이 아니라 진영을 가로지르는 통행로였음을 말해 준다.

물론 진영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서평 또한 나란히 실렸다. 1977년 11월호에서 김치수는 김현의 『한국문학의 위상』을 여덟 개의 질문으로 정리하며 우리 비평의 수준이 그만큼 문화적 충격 인자로 화하였음을 확인 하였고 구중서는 황석영의 『가객』과 김정환의 『낙동강의 파수꾼』을 잇달아 다루며 민중문학의 성과를 옹호하였다.<sup>66)</sup>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서평 역시 도식화에 대한 경계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중서는 황석영론

62) 김종철은 1970년대 초기 문지 동인으로 활동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는 창비에서 주로 활동하며 민중 지향적 비평을 이어갔다.

63) 김종철, 「이청준의 『예언자』, 『뿌리깊은 나무』, 1977.12, 164면.

64) 이상섭, 「정명환의 『한국 작가와 지성』, 『뿌리깊은 나무』, 1979.2, 156면.

65) 김윤식, 「전상국의 『바람난 마을』, 『뿌리깊은 나무』, 1978.3, 156면.

66) 김치수, 「김현의 『한국문학의 위상』, 『뿌리깊은 나무』, 1977.11, 160면; 구중서, 「황석영의 『가객』, 『뿌리깊은 나무』, 1978.7, 164면; 구중서, 「김정환의 『낙동강의 파수꾼』, 『뿌리깊은 나무』, 1979.2, 164면.

에서 민중문학이라는 지칭이 “그의 작업의 표피에 씌워지는 전제적인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는데 이는 서평란의 독자가 진영의 동인만이 아니라 종합교양지의 불특정 공중이었다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각 진영은 이 지면에서 자신의 언어를 외부의 시선 앞에 내놓고 검증받는 방식으로 발화해야 했다.

그리고 그 교차의 정점에는 김현의 서평이 놓였다. 1978년 8월호에서 그는 황석영의 『가객』, 홍성원의 『흔들리는 땅』,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세 권을 한자리에서 다루며 이를 “한국 소설의 큰 물줄기 하나”로 묶는다.<sup>67)</sup>

그는 50년대 소설이 전쟁이라는 정신의 외상을, 60년대 소설이 도시민의 가짜 의식을 드러낸 것이었다면 70년대 소설은 도시 변두리 주변 인물들의 생존을 위한 싸움을 보여 준다고 정리한 뒤, 세 작가의 편차를 각자의 예술적 성향에서 찾는다. 문지의 비평가가 창비가 ‘아끼는’ 황석영과 조세희를 나란히 놓고 노동자 층의 생존이라는 공통의 주제 아래 논하는 이 서평은 진영의 구획을 넘어 1970년대 소설의 한 흐름을 조망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특히 조세희의 난장이 연작을 두고 그가 “노동 문제를 인구의 도시 집중 문제, 공해 문제와 결부시켜 노동 문제를 산업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 파악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상찬하며 “나는 이 소설집을 읽고 크게 감동했다”고 고백하는 대목은 뒤에서 살필 조세희의 진영 초월적 위치를 예고한다.

서평란의 교차가 진영 사이의 지형을 노출하는 층위였다면 이 지면에는 진영의 구획과는 다른 결에서 형성된 쟁점 또한 기입되어 있었다. 이 잡지의 문학 지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흐름은 여성을 둘러싼 담론인데, 주목할 것은 이 쟁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이 주로 문지 계열의 필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잡지는 「여자와 남자」라는 코너를 두어 남

67) 김현, 「한국 소설의 큰 물줄기 하나: 세 권의 창작집」, 『뿌리깊은 나무』, 1978.8, 14면.

녀 관계를 다루었는데 문지 동인 김승옥이 「한이불 밑의 행복과 불행」에서 쇼펜하우어의 종의 의지를 끌어와 남녀의 차이를 논하였고,<sup>68)</sup> 진영 바깥의 박완서가 「아내를 뒤따라 죽는 남자」에서 어머니가 열녀문 앞에 절 하던 유년의 기억으로부터 출발하여 여성에게 부과된 정절 이데올로기의 내력을 되짚었다.<sup>69)</sup> 이 흐름에서 문제적인 텍스트는 1979년 2월호에 실린 김치수의 글이다. 김치수는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의 ‘경아’와 조해일의 『겨울 여자』의 ‘이화’를 대비하며, 특히 후자를 “우리의 소설 역사에 이만큼 진취적인 ‘성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드물”다 할 만큼 전위적인 존재로 독해한다.<sup>70)</sup> 그에 따르면 이화는 “가정”이라는 집단이 남자 지배 사회의 이기주의의 소산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혼인’이라는 것이 합법적인 ‘소유’ 의식임을 깨달은” 인물이며, 일부일처제가 여성에게 육체적 순결의 대가로 생활을 보장하는 교환 구조임을 폭로하는 지점에서 이 소설은 여느 소설보다 앞서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화가 성행위에서 한 번도 쾌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그 진보성을 유보한다.

김현이 1980년 2월호에 발표한 「김지원이 또렷이 보여 주듯이」는 이 쟁점을 한층 자각적으로 다룬 텍스트다. 그는 서두에서부터 ‘여류 작가’라는 명명 자체를 문제 삼는다.

나는 ‘여류 작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에는 여자에 대한 남자들의 우월감이 교묘하게 감춰져 있다. (...) 여류 작가도 작가다. 작품을 쓰는 것은 남자나 여자가 아니라 작가인 것이다.<sup>71)</sup>

나아가 그는 여성 작가의 작품집이 “일반 문화면이 아니라 특별히 마련

68) 김승옥, 「한이불 밑의 행복과 불행」, 『뿌리깊은 나무』, 1977.6, 102면.

69) 박완서, 「아내를 뒤따라 죽는 남자」, 『뿌리깊은 나무』, 1977.7, 94면.

70) 김치수, 「여자 해방과 ‘경아’와 ‘이화」, 『뿌리깊은 나무』, 1979.2, 90면.

71) 김현, 「김지원이 또렷이 보여 주듯이 - 이른바 젊은 여류 작가들의 세계」, 『뿌리깊은 나무』, 1980.2, 14면.

되는 문화면의 여성란에서 다뤄진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것이 여성의 창작을 꽃꽂이나 옷 만들기과 같은 차원으로 격하하는 제도적 배치임을 짚는다. 김지원과 오정희, 강은교를 위시하여 배경란, 고정희, 김승희, 김옥영, 나아가 아직 시집을 내지 않은 김정란과 최승자와 김혜순의 이름까지 호명하는 이 글은 1980년 벽두의 시점에서 여성 문학의 지형을 그려 보인 기획이다.

또 김현이 1978년 9월호에 발표한 「성의 해방」은 같은 문제 의식을 소설 비평의 자리에서 한층 심화한 텍스트다. 그는 성을 성적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과 혼인 제도까지 아우르는 문화사적 범주로 규정한 뒤 이 문제를 소설의 공간에 처음 들어온 이광수의 자유연애론에서 박완서에 이르는 계보를 그린다. 그가 포착하는 전환은 박완서를 분기점으로 연애와 혼인을 두고 고민하는 주체가 남자에서 여자로 옮겨 갔다는 사실이며, 『별들의 고향』의 경아와 『겨울 여자』의 이화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남자와의 관계를 스스로 사유하기 시작한 인물로 읽힌다. 김현에게 김진옥의 『나신』은 이 흐름에서 이념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소설로, 혼인을 합법화된 소유이자 일종의 매춘으로 규정하고 여성을 남성 위주의 관념이 빚어낸 소유물로 파악하며 굴레 없는 자유로운 결합을 새로운 행복으로 그려 낸 것이다. 그는 이 소설을 김치수의 「문학 사회학」과 서정미의 「성과 노동」이 각기 암시하고 주장한 바와 일치하는 텍스트로 자리매김하는데,<sup>72)</sup> 여성을 억압받는 계층으로 개념화하는 문지 계열의 젠더 담론이 한 편의 장편을 매개로 결집하는 국면이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김현의 승인은 무조건적이지 않다. 그는 김진옥의 주장에 이념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여성 해방을 논리적 극단으로 밀고 갈 때 모성의 부인이나 근친 관계의 허용 같은 귀결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그 논리의 정합성을 시험한다. 나아가 그는 소설이 주장이 아니라는 명제를

72) 김현, 「성의 해방: 김진옥의 장편 소설 『나신』」, 『뿌리깊은 나무』, 1978.9, 17면.

앞세워 여성 해방론의 저술에서 빌려 온 듯한 생경한 주장을 옮기기보다 억압의 구체적 국면을 형상화할 때 성의 문제가 비로소 문학의 문제로 부각된다고 요구한다. 여성 해방을 문화적 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문화적 처리를 문제 삼는 이 이중의 태도에는 젠더라는 쟁점으로 시야를 넓히는 순간에도 그 승인을 자기 진영의 준거로 되받는 남성 비평가의 시선이 드러워져 있다.

하여 이들 텍스트가 도달한 지점을 여성 해방의 온전한 승인으로 곧바로 등치하기는 어렵다. 김치수가 이화의 성적 주체성을 쾌감의 부재로 판정한 대목이나 김현이 김진옥의 이념에 동의하면서도 그 논리적 극단을 되짚은 대목은 하나같이 여성을 문학의 온전한 주체로 승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그 승인의 준거를 재구성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자리를 가리킨다. 문지의 비평은 문학의 자율성과 방법론을 앞세우며 젠더적 쟁점으로 시야를 확장했으나 그와 동시에 맞닥뜨린 임계까지가 이 지면에 함께 새겨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이 잡지의 지면에 진영 간의 지형만이 아니라 진영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균열이 기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김승옥과 김치수와 김현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여성을 논하는 동안 실제 여성의 자리에서 직접 발화한 필자는 박완서였고, 이 비대칭은 1970년대 문학장의 젠더 지형을 압축해 보여 준다.

잡지 지면에 드러난 박완서의 기고 역시 여성이라는 자리와 분리되지 않는다. 창간호에 텔레비전 비평 「〈신부일기〉의 신 끄는 소리」를 게재한 그는 드라마 속 가난한 인물들이 “천박함, 비굴함, 치사함, 교활함”의 틀에 박혀 재현되는 관행을 문제 삼되 그 시선은 살림하는 여성의 자리에서 출발한다.<sup>73)</sup> 그가 반복해 지목하는 것은 드라마 속 여자들이 “찍찍 신을 끌고 나가서 대문을 열어 주고 닫아 주는” 장면의 상투성이며, 이 가사노

73) 박완서, 「〈신부일기〉의 신 끄는 소리」, 『뿌리깊은 나무』, 1976.3, 120면.

동의 무한 반복에서 그는 “나도 할일이 되게 없는 여편네군, 하는 자기 혐오”를 읽어낸다. 여성 시청자의 자리에서 여성 재현의 관습을 비판하는 이 이중의 위치야말로 그의 산문이 지닌 고유한 자산이다.

박완서에 대한 당대 비평의 시선을 살피면 그 위치가 한층 분명해진다. 잡지 내에서 장편 『목마른 계절』을 평한 것은 정규웅이었는데, 그는 박완서를 “특이한 감성을 지닌 작가”로 규정하며 그 감성이 “어떤 기교나 꾸밈도 거부한다”고 평한 뒤, “소설의 상업화 현상과 몇몇 상업적인 소설에 나타나는 기교와 꾸밈의 감성이 비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요즘에 상업주의의 관점에서 이야기되지 않아도 좋을 박완서의 소설들이 널리 읽히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았다.<sup>74)</sup> 당대 상업주의 논쟁의 바깥에 박완서를 위치시키는 이 평가야말로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상업주의로 환원되지 않는 독특한 자리를 그가 점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박완서의 사례는 이 잡지의 문인 지형이 진영에 적을 둔 비평가들의 교호만으로 구성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어느 진영으로든 환원되지 않는 필자들에게도 이 지면은 고유한 자리를 내주고 있었으며 잡지의 개방성은 진영들 사이의 균형에 그치지 않고 진영 바깥으로까지 뻗어 있었다.

또 하나 이례적인 사례는 오상원의 것이다.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 오상원은 통권 4호부터 36호에 이르기까지 28편에 달하는 우화를 소설 대신 실었다. 1976년 6월호의 「여우의 잔파」는 그 전형이다. 전임 우두머리를 죽이고 권좌에 오른 호랑이가 불안에 시달리자 여우가 접근하여 반대자의 숙청을 대행하고 둘째 자리에 오르지만, 정적이 모두 제거된 순간 “이제 내 자리를 넘볼 수 있는 놈은 오로지 하나, 자네가 남았을 뿐”이라는 호랑이의 선고와 함께 처형된다.<sup>75)</sup> 권력의 자기 강화가 낳는 숙청의 악순환을 동물 세계에 투사한 이 우화가 유신 말기의 지면에서 내포했을 울림은 부연할 요하지 않는다. 「앵무새와 목소리」에서 남의 목소리만

74) 정규웅, 「박완서의 『목마른 계절』, 『뿌리깊은 나무』, 1978.9, 170면.

75) 오상원, 「여우의 잔파」, 『뿌리깊은 나무』, 1976.6, 177면.

흥내 내던 앵무새가 재판장 앞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숲에서 추방되는 결말이나,<sup>76)</sup> 「호랑이와 민들레꽃」에서 민들레를 짓밟은 호랑이가 “해가 가고 봄이 오면 또 그 뿌리에서 싹이 트고 잎이 나고 민들레꽃이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결말<sup>77)</sup> 또한 같은 문법 위에 있다. 시의 성을 떠돌이 직접적 비판을 피하고 우의의 층위에서 발화하는 이 형식은 검열 아래에서 은유와 우회로 저항의 언어를 버려 온 이 잡지의 매체 전략과 상응한다. 이 점에서 오상원의 우화는 어느 진영의 문학론을 대변했다기보다 이 매체의 수사학과 맞물리며 지면에 포함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소설의 자리를 우화가 대신했다는 사실은 잡지의 기획이 주제 선택을 넘어 문학 형식의 선택에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조세희의 경우는 어느 정도 진영의 경계 자체를 재고하게 하는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문지에서 간행되었으나 창비의 염무웅이 「난장이 세상의 문학」이라는 장문의 평문으로 이를 높이 평가하였고 문지의 김현 또한 감동하여 다루었다. 염무웅은 ‘칠십년대 작가’라는 통칭의 공허함을 파헤친 뒤 소비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기 소설이 작가의 재능과 문학의 창조성과 독자의 감수성을 차례로 소모한다고 논하고, 그 대척점에 “자본의 편이 아닌 노동의 편, 소비의 편이 아닌 생산의 편, 요컨대 물질의 편이 아닌 인간의 편에 굳게” 서는 문학을 놓는다.<sup>78)</sup> 반면 김현은 조세희가 노동 문제를 고립시키지 않고 도시 집중과 공해 문제에 결부시킨다는 점을 들어 그를 “최인훈, 이청준과 함께 지식인 소설가의 계열”에 배치한다. 문지 출판과 창비 평론가의 상찬, 문지 평론가의 비평이 교차되는 배치, 그리고 동일한 작가가 민중문학의 계보와 지식인 소설의 계보로 각기 다르게 전유되는 이러한 국면은 조세희의 위치를 압축해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이러한 자장은 비평가들의 지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

76) 오상원, 「앵무새와 목소리」, 『뿌리깊은 나무』, 1977.12.

77) 오상원, 「호랑이와 민들레꽃」, 『뿌리깊은 나무』, 1979.2.

78) 염무웅, 「난장이 세상의 문학」, 『뿌리깊은 나무』, 1978.10, 66면.

었다.

1978년 9월호의 「너도 현대아파트를 가지고 싶니?」에서 박완서는 자신을 “아파트 분양 신청을 세번이나 했으나 모두 떨어졌”던 사람이라 밝히며, 여덟 개의 연탄 아궁이를 두었던 주부의 자리에서 아파트를 향한 욕망과 좌절을 이야기한다.<sup>79)</sup> 그는 아파트를 뇌물로 주고받은 특혜 사건을 다루되 이를 거대 담론이 아니라, 청약에 번번이 떨어지는 실수요자 주부의 생활 감각으로 해부하며 조세희의 난장이 연작을 호출한다. 철거민 아파트 입주권을 도로 훔쳐 온 영희가 “다친 벌레처럼” 누워 우는 대목에서 “소름이 끼쳤고 곧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맛보았”다고 고백한 뒤, 소설 속 남매와 달리 현실의 난장이 아들딸들은 화낼 줄 모른 채 당하고 잊기를 되풀이한다고 적는 것이다. 같은 지면의 필자인 조세희의 문학적 형상이 박완서의 생활 산문 안에서 현실 비판의 준거로 다시 쓰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데, 이는 한 필자의 문학이 다른 필자의 글 안에서 매체의 의제와 호응하여 다시 만난 것이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뒤에서 살필 조세희의 한뼘소설에서도 확인되듯 이 잡지가 지속적으로 다루어 온 의제였으므로 이 글에서 박완서와 조세희가 맞닿은 방식은 문단 내부의 관계만으로 설명되기보다 매체가 지속해 온 문제의식의 맥락에서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산문에서는 ‘민중’이라는 개념어를 한 번도 활용하지 않은 채 지배와 계약의 비대칭을 생활세계의 언어로 드러내는 박완서 특유의 문법이 두드러진다. 이는 창비의 민중론이 이론의 언어로 수행했던 작업을 여성 생활자의 언어로 옮긴 것이기도 했다.

다시 조세희가 문지와 맺은 관계를 살펴보면 그를 둘러싼 문단의 교호 양상은 한층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문지는 계간마다 발표된 작품 가운데 뛰어난 것을 골라 다시 신는 채수록 제도를 운영하였는데 이는 김현의 발안이었다. 김병익은 부르주아에 대한 반감이 강했던 조세희가 자기 작품

79) 박완서, 「너도 현대아파트를 가지고 싶니?」, 『뿌리깊은 나무』, 1978.9, 60면.

이 문지에 두 차례 재수록되고 중편을 청탁받으면서 “아주 그냥 용기가 나고 힘이 났던” 사례를 들어 이 제도가 이념적으로 거리가 있는 작가들까지 확보하게 해 준 장치였다고 술회한다.<sup>80)</sup> 결국 진영의 이념과 작가의 기질이 어긋나는 자리에서도 작동한 이 인정의 회로가 조세희를 문지 쪽으로 견인하였으나, 그의 노동 서사가 지닌 사회적 함의는 염무웅의 상찬 또한 이끌어냈다. 물론 백낙청의 경우 조세희의 ‘큐비즘’적 기법의 새로움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자칫 노동자들이 읽기 어려운 “지식인소설”에 그칠 위험이 있다는 유보를 표한 바 있다.<sup>81)</sup> 그러나 조세희의 작품이 이처럼 상찬과 유보를 오가며 각 진영 비평가들의 주요 논평 대상이 된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가 잡지 지면에 투고한 한뼘소설의 형식을 이해하는 데에도 이러한 맥락은 유용하다. 김병익은 조세희가 쓰고자 한 메시지를 그대로 드러냈다면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걸 돌리는 미학적인 작업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됐”다고 평한 바 있고, 염무웅 또한 검열을 피하기 위해 표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예술적으로 승화된 표현이 나타나는 역설을 인정한다. 기호로 대체된 인명과 알레고리적 공간이라는 조세희의 장치는 이 역설의 산물이며 이는 잡지가 구사했던 우회의 편집술과도 유사해 보인다.

조세희와 지면의 접촉은 한뼘소설 연재에 앞선 창간 첫해로 소급된다. 1976년 9월호에 발표된 「우주 여행」은 추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8)에 수록되는 연작의 초기 발표분으로, 당시의 필자 소개란이 그의 작품으로 「칼날」과 「뫼비우스의 띠」 두 편만을 적고 있다는 사실은 연작의 형성기에 이 종합교양지가 발표 지면의 하나로 기능하였음을 알려 준다.<sup>82)</sup> 연작 단행본이 상재된 직후인 1978년 6월호에 발표된 「민들레는 없

80) 김병익·염무웅, 위의 글, 289면.

81) 고은·유종호·구중서·이부영·백낙청, 「좌담회 - 내가 생각하는 민족문학」, 『창작과비평』 13.3, 창작과비평사, 1978.9, 37~38면.

다. 이는 그 접속의 두 번째 국면에 해당한다.<sup>83)</sup> 필자 소개란은 “지난달에 첫 창작집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내놓았다”고 적어 연작 단행본의 출간을 알렸다. 이 글은 단일한 단편이 아니라 「또 왔읍니다, 선생님, 「숨씨 좋은 도둑, 「신에게는 잘못이 없다, 「민들레는 없다, 「“잠실”에는 호수가 두개나 있다, 「우리는 모두 몰랐다」의 여섯 소제목 아래 초단편들을 잇댄 묶음으로, 짧은 삽화들의 연쇄로 하나의 세계를 축조하는 그의 구성이 지면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주지한바 1979년에 이르러 조세희가 이 지면에서 다시 취한 형식은 ‘한뼌소설’이라 명명된 초단편이었다. 1979년 3월호의 「오늘 쓰러진 네모」는 기호 □와 △와 ○로 명명된 인물들을 통해 공해에 질식해 가는 도시를 그린 것으로 “순수한 폐를 가졌던 □씨가 맨 먼저 쓰러졌다”는 결말은 산업화의 폭력이 가장 온전한 존재부터 무너뜨린다는 난장이 연작의 명제를 압축한다.<sup>84)</sup> 이어진 「503호 남자의 희망 공장」은 고급 아파트 한 동의 세대들을 훑으며 부동산 업자와 과외 교실 경영자, 세금을 내지 않는 화가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무학의 공장 주인을 병치하여 1970년대 후반의 계층 지도를 그려낸다.<sup>85)</sup> 이처럼 기호화된 인명과 알레고리적 공간이라는 이 실험적 형식은 잡지에 장기 연재된 오상원의 우화와 마찬가지로 우의의 문법에 속하며, 그 소재 면에서는 잡지의 지속적 관심사였던 공해와 아파트, 조세 형평의 문제와 겹쳐있어, 진영 바깥에 존재하던 작가가 지면과 접속하는 통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이 발표분이 1983년 문학과지성사에서 간행된 소설집 『시간여행』에 수합된 방식 또한 잡지와 단행본의 관계를 가늠하게 한다.<sup>86)</sup> 이 소설집의 1

82) 조세희, 「우주 여행」, 『뿌리깊은 나무』, 1976.9, 170면.

83) 조세희, 「민들레는 없다」, 『뿌리깊은 나무』, 1978.6, 174면.

84) 조세희, 「오늘 쓰러진 네모」, 『뿌리깊은 나무』, 1979.3, 144면.

85) 조세희, 「503호 남자의 희망 공장」, 『뿌리깊은 나무』, 1979.5, 110면.

86) 또한 이 잡지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시간여행』이라는 조세희의 두 단행본 모두에 발표 지면을 제공한 매체였다.

부는 2, 3면 내외의 짧은 장 스물다섯 개를 잇댄 연작 「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로 짜여 있는데 그 표제부서가 1978년 6월호 발표분의 한 소제목에서 취해진 것이다. 「민들레는 없다」의 여섯 단편은 표제 그대로 연작의 연속된 장들로 재배치되었고, 「오늘 쓰러진 네모」와 「503호 남자의 희망 공장」 역시 표제와 본문을 거의 유지한 채 수록되었으며, 「고맙다, 어린 왕자」는 「사막에서」로 표제를 바꾸어 실리고 그 어린 왕자 모티프는 별도의 장 「어린 왕자」로 확장되었다.<sup>87)</sup> 연작 스물다섯 장 가운데 아홉 장이 이 잡지의 발표분에서 비롯된 것인데, 본문 개작의 흔적은 미미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이 편제 층위의 연속성이다. 1979년 6월호의 「편집자의 말」처럼 작가의 절필 선언과 함께 중단되었던 이 지면의 연재는<sup>88)</sup> 수년 뒤 단행본에서 짧은 장들을 잇대어 하나의 서사를 축조하는 연작의 구성 원리로 완성되었다.

이상의 문인들이 각기 세태 비평과 우화, 한뼘소설 등 상이한 형식으로 이 지면에 접속하였다는 사실은 하나의 공통점으로 수렴된다. 작가들은 매체가 마련한 형식의 틀 안에서 자신의 문학을 변주했으나, 여기에는 한 가지 층위의 구별이 필요하다. 편집진의 불개입 원칙은 시와 소설, 예술 비평, 서평에 국한된 것이었고 텔레비전 비평이나 세태 에세이와 같은 일반 기고문은 우리말 원칙에 따른 편집진의 윤문을 거쳤다. 그러므로 박완서의 에세이가 보여 주는 평이하지만 치밀하고 명료한 문장은 작가의 문체인 동시에 편집을 거친 매체의 문체이기도 하다. 이 잡지의 문인 지형에는 이처럼 서로 다른 두 모습이 공존하였다. 진영 문인들의 비평이 비교적 자유롭게 병치되었고 다른 한편에는 진영 바깥 문인들의 글이 매체

87) 조세희, 『시간여행』, 문학과지성사, 1983. 「사막에서」는 38~43면, 「어린 왕자」는 57~75면, 「오늘 쓰러진 네모」는 76~81면, 「503호 남자의 희망 공장」은 82~87면, 「또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우리는 모두 몰랐다」까지의 여섯 장은 88~110면에 수록되었다.

88) 「편집자의 말」, 『뿌리깊은 나무』, 1979.6, 11면. 편집진은 조세희가 “앞으로 얼마 동안 글 쓰는 일을 모두 쉬겠다”는 뜻을 전해 왔음을 알리며 한뼘소설의 연재 중단을 공지하였다.

의 언어에 맞추어 조율되었다. 이 두 지면을 함께 살필 때 『뿌리깊은 나무』가 문학을 다룬 방식도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 5. 결론

본고는 서로를 타자로 인식하던 비평 세력들이 한 지면 위에 나란히 놓이는 장면을 연출한 종합교양지 『뿌리깊은 나무』를 문학사의 시야 안으로 불러들이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잡지는 분과 간 편중 없는 편집위원회와 비판적 지식인의 회집으로 당대 지식장의 축도를 구현하였으며 그 균형의 원리를 ‘저울대’로 명명하였다. 분과 사이의 저울은 강한 편집권으로 고르게 맞추되 비평과 서평의 저울은 논의의 무게에 따라 기울도록 둔 것이다. 그 결과 편집진은 본문에는 되도록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코너의 편제와 배치는 적극적으로 조율하였고 서로 다른 진영의 문학론이 한 지면에 나란히 놓일 수 있었던 조건도 여기에서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 조건의 저변에는 문학이 잡지의 중핵이 아니었다는 사정이 놓여있었다. 문학 지면이 편집의 시선이 집중되는 자리가 아니었기에 도리어 비평과 서평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문학을 주변화한 종합교양지라는 위치는 역설적으로 여러 문학 세력이 한 지면에 모일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그 토대 위에서 문학비평란의 담당 주체는 유종호로부터 김주연을 거쳐 김현으로 이행하였으며 필자를 익명에 부치는 초기 비평란의 실험 또한 이러한 조건의 소산이었다. 비평 세력 간의 교호 양상은 첨예하게 유지되어 서평란에서는 창비와 문지 진영의 견제와 경의가 교차하였고, 여성이라는 쟁점을 둘러싼 비평과 박완서의 생활 산문은 진영의 지형과는 다른 균열을 지면에 새겼다. 박완서의 세대 비평과 오상원의 우화와 조세희의 한뼘소설은 진영의 문학론이 아니라 매체가 마련한 형식에 접속함

으로써 지면에 채류하였다.

결국 이렇게 조율된 지면이 최종적으로 성립시킨 것은 하나의 공론의 자리였다. 하버마스는 부르주아 공론장이 “원래 문예적이고 예술 비평적이었던” 논의의 장에서 발원하여, 사적 개인들이 독서하는 공중으로 결합하고 비판적 토의를 나누는 가운데 형성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뿌리깊은 나무』의 비평·서평 지면은 이 문예적 공론장의 한 변형대로 읽을 수 있다. 다만 하버마스가 상정한 공론장이 사적 개인들의 자발적 결합을 전제한 데 비해, 이 잡지의 공론장은 강한 편집권의 매개와 검열이라는 제약 위에서 성립하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서로 대립하는 진영의 목소리가 한 지면에 나란히 놓여 독자 앞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그 편집 매개가 어느 한쪽으로도 저울을 기울이지 않은 채 대립 자체를 지면의 원리로 삼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진영의 문학론이 나란히 놓일 수 있었던 조건은 편집 주체의 조율을 통해 성립된 ‘매개된 문예적 공론장’이라는 이 잡지의 성격과 맞닿아 있었다.<sup>89)</sup>

초창기의 창비가 분화 이전의 연합이었다는 염무웅의 회고를 환기하면 이 잡지의 지면에서 관찰된 회집은 각자의 진지를 구축한 뒤에 이루어진 재회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창비와 문지의 대립 구도는 1970년대 문학장의 주요 장면들을 이룩했으나 각 진영의 비평가들은 동시에 한 종합 교양지의 필진으로 교호하고 있었다. 진영사의 서술에 이러한 매체사의 시좌를 겹칠 때 1970년대 문학장은 제3지대의 지면을 아우른 입체적 공간으로 다시 독해될 것이다.

89) 부르디외는 판매와 광고와 홍보처럼 상징적 재화를 권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직업군, 곧 문화의 생산과 소비 사이에서 분류와 권장의 작업을 수행하는 이들을 신흥 뿌리부르주아지의 ‘문화매개자’로 명명한 바 있다. 피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하, 최종철 옮김, 새물결, 2005, 598면 및 653-654면 참조. 본고에서 편집 주체의 매개를 강조하는 것은 이 개념의 문제의식과 상통하되 여기서의 매개는 취향의 권장이 아니라 대립하는 문학론들의 병치를 조직하는 편집 행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개념의 전용에 해당한다.

## | 참고문헌 |

### 1. 기본 자료

『뿌리깊은 나무』, 『문학과지성』, 『창작과비평』

### 2. 단행본

강운구 외, 『특집! 한창기』, 창비, 2008.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조세희, 『시간여행』, 문학과지성사, 1983.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Bakhtin, Mikhail, 김희숙·박종소 역, 『말의 미학』, 길, 2006.

Bourdieu, Pierre,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 문학 장의 기원과 구조』, 동문선, 1999.

Bourdieu, Pierre, 최종철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하, 새물결, 2005.

Genette, Gérard,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trans. Jane E. Lew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Habermas, Jürgen, 한승환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나남, 2001.

### 3. 논문

김병익·염무웅,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을 말한다: 김병익, 염무웅 초청 대담 (사회: 백영서), 『동방학지』 16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 261-297면.

김성환, 「1960-70년대 계간지의 형성과정과 특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김현주, 「1960년대 후반 ‘자유’의 인식론적, 정치적 전망 -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8,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노태훈, 「80년대를 건너가는 방식과 문학 체제 재편 - 『창작과비평』, 『문학과사회』의 복·창간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1, 한국현대문학회, 2020.

박선희, 「번역문의 결텍스트 -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에 대한 정의」, 『번역학연구』 16, 한국번역학회, 2015.

서은주, 「냉전의 지식문화 - 1960~1970년대 소외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7, 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_\_\_\_\_, 「소외의 재현 - 『뿌리깊은 나무』의 「숨어사는 외톨박이」 시리즈를 중심으로

- 」, 『구보학보』 26, 구보학회, 2020.
- 소준철, 「1970년대 전통적 생활세계와 생애사적 기록: 『뿌리깊은 나무』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송은영, 「민족문학이라는 쌍생아 - 1970년대 『창작과비평』의 민중론과 민족주의」, 『상허학보』 46, 상허학회, 2016.
- , 「1970~80년대 민중의 외연과 내연 - 『뿌리깊은 나무』의 외톨박이 시리즈와 『민중 자서전』 시리즈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90, 동악어문학회, 2023.
- 안서현, 「계간지 시대 비평 담론 연구 - 1966~1980년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윤상현, 「1960~1970년대 초 지식인들의 사유구조와 역사 서사 -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80권 2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
- 이봉범, 「잡지미디어, 불온, 대중교양 - 1960년대 복간 『신동아』론」, 『한국근대문학연구』 27, 한국근대문학회, 2013.
- 이한빛, 「산업화 시대의 문화기획 - ‘뿌리깊은 나무’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전상기, 「토박이·민중·댄디·교양 - 『뿌리깊은 나무』의 미디어적 위상」, 『반교어문연구』 45, 반교어문학회, 2017.
- 최은아, 「잡지 『뿌리깊은 나무』의 민중주의와 글쓰기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하상일, 「김현의 비평과 『문학과지성』의 형성과정」, 『비평문학』 27, 한국비평문학회, 2007.
- 한보성, 「지식의 ‘민주화’와 ‘문학사회학’의 등장 - 김현의 문학사회학과 『뿌리깊은 나무』의 연관성」, 『반교어문연구』 45, 반교어문학회, 2017.
- 허선애, 「『문학과지성』의 비평적 글쓰기 연구 - ‘문학·지식’의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Abstract>

## Interaction between the magazine 『Deep-Rooted Tree』 and the Knowledge and Literature Field in the 1970s

Choi, Eun Ah

This article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literary space that emerged in *The Deep-Rooted Tree*, a general-interest monthly in which critics active in major literary quarterlies of 1970s Korea—including *Creation and Criticism*, *Literature and Intellect*, and *World Literature*—came to coexist. *The Deep-Rooted Tree* sought to present a comprehensive view of the contemporary intellectual world by drawing contributors from a wide range of academic disciplines. When opinions diverged, the magazine maintained an editorial principle of presenting both sides rather than lending weight to either, leaving judgment to its readers. The editors described this principle through the metaphor of a balance scale.

While the editorial staff exercised broad authority over articles in general, it refrained from editorial intervention in literary works, criticism, and book reviews. This article argues that this mode of operation, in which intervention and nonintervention were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each section, enabled divergent conceptions of literature to coexist. In particular, the fact that Kim Uchang and Kim Hyeon, who respectively represented the intellectual orientations of *World Literature* and *Literature and Intellect*, successively

served as editorial board members responsible for literature indicates that the magazine's literary pages were not the preserve of any single literary camp. Nor was it rare for critics from one camp to evaluate works associated with another in the book-review section.

The magazine also provided space for issues that cannot be reduced to the divisions among the major literary camps of the period. Writings on women's issues, Park Wanseo's prose, and Cho Sehui's experimental one-page fiction (Hanppyeom Soseol) demonstrate that issues extending beyond the existing structure of literary camps also occupied a place in the magazine.

On the basis of this examination, this article conceptualizes The Deep-Rooted Tree as a literary public sphere. It argues that the magazine's position as a general-interest cultural magazine, in which literature occupied a relatively peripheral place, in fact provided the basis for bringing diverse literary forces together on the same pages. In doing so, this article supplements the conventional account of the literary landscape of the 1970s as structured primarily by rivalry among the major quarterlies and seeks to restore another site in which contemporary writers and critics experienced coexistence alongside competition.

Key words: 1970s, Magazine, 『the Deep-Rooted Tree』, Knowledge Field, Literature Field, Literature Circles

투 고 일 : 2026년 8월 18일

심 사 일 : 2026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 2026년 9월 10일

수정마감일 : 2026년 9월 28일